

8 2026 VOL. 362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D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HONGSAM
BALL**

BEST SERVED ❄️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Shin Tae Yong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
**COME
BACK
STRONG**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융복합 탈 전시회’ 운영 사업자 모집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융복합 탈 전시회 : 두 얼굴 하나의 영혼’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소개하는 전시 프로젝트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류 접수는 2026년 8월 18일 오전 10시(자카르타 시간 기준)까지 진행되며,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 시 서류 제출 전 문화원을 방문해 행사 세부 내용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자세한 입찰 관련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입찰 개요]

- 사업명 :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융복합 탈 전시회 「두 얼굴 하나의 영혼」
- 수요기관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Rp.1,345,000,000(세금 포함)
- 공고기간 : 2026년 7월 28일 ~ 2026년 8월 18일 10:00(자카르타 시간 기준)
-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8월 18일 10:00(자카르타 시간 기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bidding@kccindonesia.org
- 문의 : 김현주(+62-21-2903-5650, bidding@kccindonesia.org)

※ 자세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https://id.korean-culture.org/ko/485/board/231/read/146430>

Good Shot for
Good Future
Drive for Hope

제2회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GREEN*

한인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스윙이 희망이 됩니다.



2026년 8월 14일 (금)
오후 12시 30분 (Tee-Off)



Damai Indah Golf (BSD)
BSD City, Tangerang Selatan



문의 : 한인회 사무국
☎ 0812-1960-308
카카오톡 ID : korasos

[후원금 등급 및 혜택]

1

플래티넘

Rp.50.000.000 이상



본인 + 동반 2명



광고보드 5개

2

다이아몬드

Rp.30.000.000 이상



본인 + 동반 2명



광고보드 3개

3

골드

Rp.20.000.000 이상



본인 + 동반 1명



광고보드 2개

4

실버

Rp.10.000.000 이상



본인



광고보드 1개

5

브론즈

Rp.3.000.000 이상



본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와 외식업협회의 2년 연속 연합 봉사 현장. K-POP 댄스와 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폰독 카시 아가페'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함.

4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융복합 탈 전시회’
운영 사업자 모집

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제2회 장학기금후원 자선골프대회

9 [디카시 풍경 30]

선물 | 이지완

1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후견주의를 이해하면 인도네시아가 보인다

12 월간 뉴스 브리핑

16 [한인회 이모저모]

제2분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앱’
운영 방안 논의 및 친목 도모

17 [지역한인회 이모저모]

땅그랑반튼한인회, 하반기 문화강좌
회원 모집 - 서예·미술 프로그램 운영

18 [권영경의 열두 달 ‘식물칼럼 시즌 2’]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contents

2026. 8. 통권 362호

20 [법창비화3] 이복형제간 상속 싸움

22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외식업협회의, ‘폰독 카시 아가페’서

2년 연속 연합 봉사 성료

26 [조연숙의 인도네시아 천 개의 이야기]

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8 [특별대담] 기록하는 언론이

디아스포라의 미래를 연다

- 한인뉴스 30년·데일리인도네시아

27주년 기념 기획 대담 인터뷰

33 [코원재인니한글학교]

ISJ와 교육 협약 체결,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34 [박물관 이야기 켄 3]

세 번째 이야기 - 아모가빠사,

싱아사리의 야망을 담은 돌

37 [김재훈의 ‘세무 TALK’]

PMK 44/2026 시행, 세무대리 제도가

달라진다

38 전남 강진군 책놀이 프로그램 강사

‘모모쌤’ 파리카 씨

43 한·인도네시아 사모벤처투자협회

(KIIA), 자카르타서 공식 출범, 민간

투자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44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푸르메재단·샘터 공동 기획

‘장애인식개선동화 1호’ 선정,

이영미 작가의 《휠체어 타고 다이빙》

46 [서상영의 한방칼럼 40]

약초꾼 이야기 5화 - 황백(1)

49 [Michelle's Hyaang the Yoga 16]

선자세 땅 위에 서는 법, 존재를 다시

배우다

50 [손상현의 자카르타의 아침]

한 타를 아끼려다 라운드를 잃는다

53 중진공 자카르타 GBC, ‘K-Work

Bridge’ 1기 교육 성료, 인도네시아

우수 인재 채용 희망기업 모집

54 [행복에세이] 나의 혁명은

침대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루미

56 『시가렛 걸』 ‘2쇄 인쇄’ 사건 | 배동선

58 익숙함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을

나는 몰랐지 | 배선목

60 [하영지 소장의 인도네시아어 교실 1]

3년 동안 함께 성장한 교실 이야기

62 [제슬린의 12가지 한국 이야기 1]

고려대 교환학생의 잊지 못할 고연전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60회]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5)

66 2026 임원회비 납부명단

68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One Step Ahead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KORINDO

www.korindo.co.id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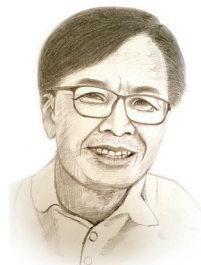
햇살 보송보송 아늑한 이른 아침
구름장막이 늦잠 자는 사이
지평선 끝, 그데gede와 살락salak
황급히 찾아와 창을 두드린다!
친구야, 축하한다!
고운 쪽빛 하늘은 눈부신 미소
환희의 축포를 터트린다

*그데와 살락: 보고르 지역의 산 이름
(Gunung Gede, Gunung Salak)



글.사진 | 이지완

후견주의를 이해하면 인도네시아가 보인다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선거나 정당, 헌법과 같은 제도에 주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활동한 기업인이나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인도네시아는 결국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과 제도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과 신뢰를 쌓았는지에 따라 사업이 열리기도 하고, 외교가 진전되기도 하며, 정치가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후견주의 체제(Patron-Client System)이다.

후견주의는 단순한 부패나 정실인사를 뜻하지 않는다. 정치학에서 패트론(Patron)은 권력과 자원을 가진 후원자이고, 클라이언트(Client)는 그 후원을 받는 대신 충성과 협력, 전문성과 성과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정치뿐 아니라 경제, 군부, 종교계, 기업, 지방 사회까지 폭넓게 작동해 왔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와 네트워크가 제도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화도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패트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군부에 집중되어 있던 후견 네트워크가 오늘날에는 대통령, 정당 지도부, 지방 정치인, 기업인, 군부, 대형 이슬람 단체 지도자 등으로 분산되었다. 권력은 민주화되었지만, 후견 네트워크 역시 함께 다층화된 것이다.

패트론의 지위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패트론은 대체로 기능 조직의 수장, 군부 실력자, 종교 지도자, 유력 정치 가문, 지역 명문가 출신인 경우가 많다. 자바의 귀족 문화와 정치 왕조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권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자산으로 작용한다. 지방 분권 이후에는 지역 유력 가문이 새로운 정치 패트론으로 성장했고, 정치적 영향력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사례도 흔하다. 결국 세습되는 것은 직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네트워크이다.

수하르토 시대는 후견주의가 가장 강하게 작동한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화교 기업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국가는 사업권과 독점권, 금융과 보호를 제공했고, 기업은 자본과 경영 능력, 국제 네트워크,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관계는 단발적인 특혜가 아니라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성장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정치적 후원은 기업의 성장을 낳았고, 성장한 기업은 다시 정권을 지원하면서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수하르토의 대표적인 경제적 피후견인은 수도노 살림(살림 그룹), 윌리엄 수르야자야(아스트라 인터내셔널), 예까 찰파 위자야(시나르마스 그

룹), 뿌라요고 빵에스뚜(바리토 퍼시픽), 수르야 위조위노(구당가람 그룹), 목타르 리아디(리포 그룹), 토미 위나타(아르타그라하 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도 새롭게 보인다. 인도네시아 진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최계월 코데코 회장은 단순히 뛰어난 사업가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핵심 실력자였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과 장기간 신뢰를 구축했다. 베니 무르다니 역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로 인식했고, 이러한 개인적 신뢰는 군납 계약과 자원 개발, 특히 마두라 유전 개발과 같은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 인적 네트워크였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과 하비비 전 부통령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비비는 뛰어난 공학자였지만, 그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정책은 수하르토의 정치적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대로 수하르토는 하비비의 전문성을 통해 국가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는 일방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였던 셈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조는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유습 칼라 전 부통령은 오랫동안 제계와 동부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바흐릴 라하달리아 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겸 골카르당 대표는 인도네시아 청년기업인협회(HIPMI)를 기반으로 성장해 중앙 정치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과 기업, 정치를 연결하는 엘리트 네트워크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견주의를 이야기하면 흔히 부패를 떠올린다. 물론 후견주의는 부패와 결합할 위험이 크다. 권력과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특혜와 독점, 정실인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후견주의를 단순히 부패로만 이해해서는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때로는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정부와 기업, 외국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비공식 제도로 기능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사례 가운데 상당수도 결국 국 현지 사회와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한 결과였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바뀌고 정당은 재편되어도 신뢰와 후원, 인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려면 법률과 제도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가 누구를 후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후견주의는 인도네시아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를 움직이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최계월과 베니 무르다니의 협력이 왜 가능했는지, 수하르토 시대의 경제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는지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후견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을 갖는 일이다. [끝]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M-346F 경전투기 12대 도입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가 인도네시아로부터 M-346F 블록 20(Block 20) 다목적 경전투기 겸 고등훈련기 12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고 7월 2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레오나르도는 인도네시아 방산업체 이시스템 솔루션스 인도네시아(Esystem Solutions Indonesia)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이번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양측이 체결한 의향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2030년부터 항공기를 인도받을 예정이지만, 전체 물량의 인도 완료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레오나르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내 정비(MRO) 및 조종사 훈련 역량 구축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새 항공기를 조종사 양성용 고등훈련기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M-346F 블록 20은 유럽과 북미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블록 20형은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으로,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를 갖춘 조종석, 전자방어체계, 신형 무장체계 등을 탑재했다.

레오나르도의 로렌초 마리아니 최고경영자는 “인도네시아의 M-346F 도입은 이 항공기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레오나르도의 역량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방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국방 분야에 337조 루피아(약 188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187조1,000억 루피아이며, 약 83조5,000억 루피아는 군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체결한 주요 무기 도입 계약으로는 튀르키예산 KAAN 전투기 48대와 프랑스산 라팔(Rafale) 전투기 약 42대 구매 계약이 있다.

자카르타 이민국, 방문비자로 건설 노동한 중국인 10명 추방

북부자카르타 이민국 지소는 관내 뿔루잇 주택단지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중국 국적 외국인 10명을 적발해 추방했다고 7월 25일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방문비자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지만, 체류허가 목적과 맞지 않는 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 당국의 조사 결과, 중국인 10명은 모두 방문비자(C2)로 입국한 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 지소 렌드라 마울리안샤 소장은 지난 7월 25일 “중국 국적 외국인 10명 모두 방문비자(C2)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고,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3명은 철근을 조립하고 건물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7명은 건물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목재와 철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렌드라 소장은 이어 “이러한 업무가 방문비자 발급 목적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이들 10명은 2011년 제6호 출입국관리법 제1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렌드라 소장은 이번 사건이 뿔루잇 까랑사리 주택단지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10명은 모두 북부 자카르타 이민지소 유치시설에 수용되는 출입국 행정조치를 받은 이후 지난 7월 17일, 출입국 당국은 이들을 모두 추방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입국금지 명단(블랙리스트) 에도 등재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수수료 7,500만 루피아로 인상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행 5,000만 루피아에서 7,500만 루피아로 인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귀화)할 경우 최대 7,500만 루피아(약 4,1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인이 국적을 자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루피아(약 27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7월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정부령 제30호(2026년) ‘비조세 국가수입(PNB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 최대 7,500만 루피아로 정해졌으며, 실제 금액은 귀화 절차의 법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자발적인 국적 포기 수수료는 최대 500만 루피아로 책정됐다.

위도도 법무부 일반법무국 국장은 이번 규정이 과거 법무인권부에서 법무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점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항목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며 “일부는 그대로 유지됐고, 일부는 조정됐다”고 말했다.

위도도 국장은 이번 법규정 개정으로 국가에 기여가 높은 외국인에게는 수수료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귀화하는 축구선수 등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건당 2,500만 루피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적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 복수국적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5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회복하려는 신청에는 1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인니, 외국인 인플루언서 상업 활동 단속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관광객 유치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방문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 체류 중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7월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이민청장은 “이민 정책은 이제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국가 안보 위험은 최소화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발리에서 관광비자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헨다르삼 청장은 “관광객이 휴가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협찬 △의무적인 홍보 게시물 작성 △수수료 또는 대가 지급 △홍보를 조건으로 무료 숙박이나 서비스 제공 즉, 콘텐츠 제작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 당국이 개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청은 지난 4월부터 발리에서 ‘다르마 데와타(Dharma Dewata) 이민 순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쟁구(Canggu), 우붓(Ubud)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국은 △제품·서비스 홍보 △전문 콘텐츠 제작 △무료 숙박·식사 등을 제공받는 대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바터(barter) 방식 등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상업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즉 무비자 입국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인도네시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콘텐츠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적과 여행 목적에 따라 △A1 무비자 △B1 도착비자(VoA) △C1 방문비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상업적 목적의 전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용 방문비자(C5A)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C5A 비자는 인도네시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급여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기업과 고용관계가 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업종별 허가도 취득해야 한다. 언론 취재 활동에는 C5 비자, 영화 제작에는 C14 비자가 각각 적용된다.

이 같은 강화된 정책에 관광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PHRI)의 하리야디 수캄다니 회장은 인플루언서들이 정부의 관광 홍보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캄다니 회장은 “이런 접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플루언서는 정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인도네시아를 홍보하는 데 기여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처음 알게 되고, 이는 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여행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온 익명의 외국인 콘텐츠 제작자는 자카르타글로브에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자신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인니, 올해 10월부터 바이오디젤 ‘B50’ 판매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팜유 함량을 높인 바이오디젤 ‘B50’ 판매를 의무화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초로 B50 바이오디젤 도입에 나서며 연료 수입 감축과 에너지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B50은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50%와 일반 경유 50%를 혼합한 연료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화석연

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B5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함마드 코다리 공보처장은 “B50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B50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B50 도입을 통해 최대 170조 루피아(약 94억 달러) 규모의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코다리 처장은 B50이 팜유 산업 전반에 ‘승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팜원유(CPO) 분야에서 약 23조4,900억 루피아(약 13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B40 바이오디젤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도 공급 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며, 시몬 알로이시우스 만티리 사장은 B50 의무화로 하루 약 31만 배럴 규모의 경유 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SR)의 파비 투미와 CEO는 B50 정책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유가 수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 정책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높을 경우 B50의 효과가 커지지만, 유가가 낮아지면 정책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50 확대는 추가적인 팜유 사용을 요구해 수출 물량 감소와 팜유 수출 부담금 수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비 CEO는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B50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 dailyindo@gmail.com
 ■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제96회 열린강좌



한인니문화연구원 초청강연

잊혀진 사람들, 현대판 노예

2026.08.29 (토) 10:00-12:00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IK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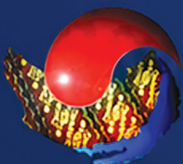
전 세계 현대판 노예 5천만 명(ILO 추산). 인신매매·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제 인권 NGO IJM과 함께 그 실상과 정부·기업의 대응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강연 어대준 · IJM Korea 커뮤니케이션 실장
JKS 6기 졸업생

다루는 이야기

- 현대판 노예 5천만 명의 현실
- 각국 정부·민간기관의 대응
- 기업 글로벌 공급망과 강제노동 이슈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YAYASAN KAJIAN STUDI BUDAYA INDONESIA

제2분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앱’ 운영 방안 논의 및 친목 도모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2분과가 지난 7월 29일 (수) 저녁, 자카르타 청담가든에서 임원 저녁 모임을 갖고 추진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모임에는 양태화 한인회 수석부회장(한인뉴스 편집인 겸임)을 비롯해 강수한, 김신, 변진, 이승준, 김민규, 이주환, 박상혁, 최지훈, 이근대, 이성훈, 송호진 임원과 사무국 관계자, 한인뉴스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애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콘텐츠 구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비자·임대·교육·의료 등 교민 실생활 밀착형 정보 공유 방안을 비롯해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동호회와 한인 기업 정보 디렉토리 활성화 등 앱 운영에 필요한 체계 수립안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건전한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필요



성도 함께 다루었다.

이 자리에서 양태화 한인뉴스 편집인은 "앱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정립이 필수적이다"라며,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생활 정보와 한인 사회 소식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이어 진행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2분과 임원진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단단히 다졌으며, 향후 앱의 차질 없는 운영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지혜를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하반기 문화강좌 회원 모집...

서예·미술 프로그램 운영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 박성대)가 지역 교민들의 문화 활동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문화강좌 회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문화강좌는 서예와 미술 분야로 구성되며, 교민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예 강좌는 오는 8월 10일부터 12주간 진행되며 제경종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미술 강좌는 8월 18일부터 12주간 운영되며 김현서 강사가 지도한다. 수업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강좌는 Karawaci Office Park Blok H-28, Kota Tangerang (땅그랑반튼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카카오톡 또는 WhatsApp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0821 8166 6137 또는 카카오톡 ID 'kortangerang' 으로 하면 된다.

박성대 회장은 “문화강좌를 통해 교민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한인사

2026년 땅그랑반튼한인회

하반기 문화강좌 회원모집

월요일 서예 강좌

- 강사: 제경종
- 기간: 8월 10일 ~ (12주)
- 시간: 오전 11시 ~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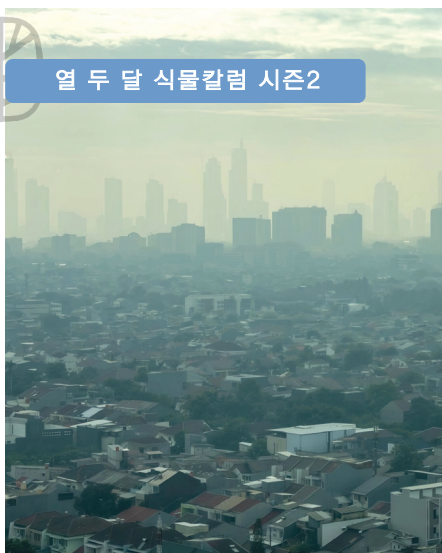
화요일 미술 강좌

- 강사: 김현서
- 기간: 8월 18일 ~ (12주)
- 시간: 오전 10시 ~ 12시

- 신청 방법 : 카카오톡 또는 Whatsapp
- 문의처 : 0821 8166 6137, 카톡 ID: kortangerang
- 강좌 장소 : Karawaci Office Park Blok H-28, Kota Tangerang (땅그랑반튼한인회 사무실)

회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민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계획이다.



2026년 7월 25일 자카르타 하늘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권영경 | 『식물일기』 저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여러 차례의 추가 검사 끝에 최종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 며칠은 내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부터 매일 운동을 한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채소를 삶고 찌고, 간도 심심하게 해서 먹는다. 허끝에서 느끼는 도파민은 분명 줄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돌아왔다. 아침에 눈뜨는 몸의 가벼움, 부기가 빠져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고마워” 하고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좋은 것을 먹었더니 건강을 돌려준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요즘 자카르타의 하늘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늘은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는데, 왜 유독 이곳의 하늘은 이토록 잿빛일까. 저 회색빛 대기를 딱 한 겹만 걷어내면, 내가 지난 6월 한국에서 보았던 깊고 푸른 하늘이 그대로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기다. 생각해 보면 도시도 하나의 살아 있는 몸인데, 사람의 몸이 오랫동안 자극적인 음식과 운

동 부족으로 병들어 가듯, 도시 역시 오랜 시간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과도한 에너지 소비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잃어간다. 몸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듯 도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 아니겠는가.

식물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공기를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 나무는 앞으로 햇빛을 붙잡고, 뿌리로 빗물을 켜안는다. 거기다 흙 속 미생물을 먹여 살리고, 새와 곤충의 집이 되어 준다. 결국 나무 한 그루는 공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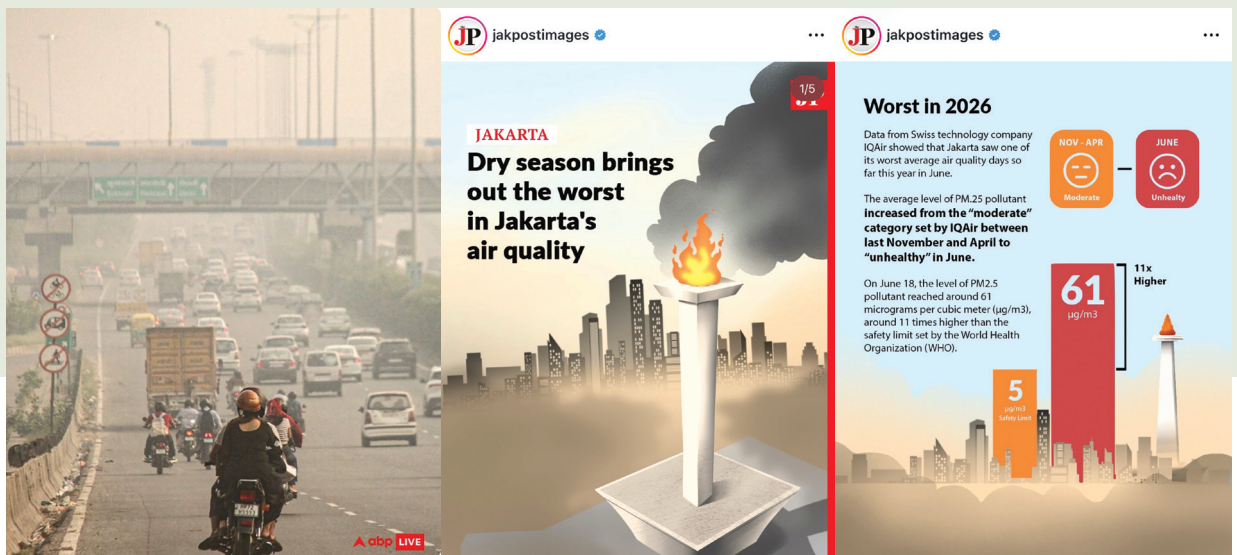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가 식물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분 하나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조금 더 건강한 공기와 흙, 그리고 미래를 심는 일이다. 물론 베란다 화분 하나가 자카르타의 하늘을 푸르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자동차를 하루 덜 탄다고, 텀블러 하나를 사용한다고 당장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도 그랬다. 하루 운동했다고 몸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하루 채소를 먹었다고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된다. 도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힘들겠지만)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 보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여 사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오래 쓰는 물건을 선택하기, 식물을 심고 오래 돌보기. 거창하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도시의 호흡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지난 열두 달 동안 나는 이 지면을 빌려 식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반얀나무, 차나무를 이야기했고, 이름도 어려운



자카르타 언론에서 언급하는 2026년 대기오염의 심각성

희귀식물과 오래된 숲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식물
을 이야기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그 시간
을, 그것들이 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자카르타의
뿌연 하늘을 보며 그동안의 식물 수다가 너무 작
은 수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큰 숲도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한 장의 잎이 햇빛을
모으고, 그 시간이 수십 년 쌓여야 비로소 한 그루
의 나무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우리가
숨 쉬는 하늘도 결국 그런 시간 위에서 조금씩 달
라질 것이다.

언젠가 자카르타의 하늘이 (우기가 아니어도)
푸르러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번 호로 〈식물칼럼 시즌2〉는 막을 내리지
만 내가 바라는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언젠가 자카르타 하늘이 다시 푸르러지는 날, 다
시 신나게 식물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다. 잎맥을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하고, 계절을 이야기하며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며, 모두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
로 도시를 사랑하고, 내 건강을 돌보듯 내 앞의 지
구를 함께 돌봐주시길. 푸른 하늘은 갑자기 우리
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풍경일 테니.

그동안 〈식물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리 시즌 3에서 싱그럽게 만나요.

그때까지 차곡차곡 나무와 숲의 이야기들
을 모아둘게요.



2026년 발리 | 단양 천정집 | 서울의 파란 하늘

[법창비화] 이복형제간 상속 싸움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한국에서 등나무(로탄) 가구 사업을 하던 신안군(가명) 씨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후 인건비가 급상승하자 채산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한국 공장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찌르본 지역으로 이전했다.

현지 법대로 외자투자 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최소 투자액 제한이 있고 공장 소재지도 공단 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신 씨는 본인 명의의 외자투자를 포기하고 현지인의 이름을 빌린 '차명투자' 방식으로 내자투자 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일구어오던 중, 중병에 걸려 지역 병원에 입원한 지 달포 만에 갑자기 타계했다. 사망 당시 그의 종교는 이슬람이었으며 국적은 한국이었다. 장례는 이슬람식 절차에 따라 치러졌고, 그는 무슬림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상속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에 있는 아들 1명과 딸 2명, 현지인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1명,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1명과 딸 1명이었다. 여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현지인 부인의 자녀 2명까지 더해 총 8명의 자녀가 얹혀 있었다.

현지에서 사업하던 고인의 한인 친구들은 신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장례식까지 주관했다. 고인의 유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은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국 상속인 3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상황을 조사하던 중, 한인 친구들로부터 차명 회사와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서류상 사주로 되어 있는 현지인은 고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으며, 고인과

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1명 있었다.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도 1남 1녀가 있었으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혼했기에 그 아이들은 상속권이 없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세 번째 부인은 젊은 여성으로, 결혼 전에는 첫 번째 부인의 사업장 직원이었다. 그녀는 신 씨가 입원한 동안 정성껏 간호했기에 한인 친구들도 고마워하는 인물이었다. 친구들은 세 번째 부인의 아이들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 D를 찾아가 보니 그는 막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기에 인접 도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D의 변호사에게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D 측의 답변은 강경했다.

"한국에 있는 한인 상속인 3명에게 50%,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의 아들 D에게 50%를 상속하겠다. 세 번째 부인의 아이 2명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D 측은 "고인의 종교가 이슬람이었으므로 이슬람 상속법에 따라 비무슬림(한국의 아들)과 여성(한국의 딸 2명)은 상속권이 없으며, 세 번째 부인 역시 혼인·출생신고가 없었으므로 그 자녀들 또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슬람법상으로는 D만이 유일한 적법 상속인이지만, 고인이 한국인이라는 점과 한인 자녀 2명이 장례식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한인 상속인 측에 50%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 날 고인의 예금이 있는 H은행 지점을 찾아갔으나, 이미 D의 변호사와 세 번째 부인의 변호사로부터 예금 지불 청구 서한이 접수된 상태였



다. 은행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전체 상속인이 서명한 합의서 없이는 절대로 예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뜻을 박았다. 자카르타 본사의 법무팀을 찾아가 상담해 보았지만 대답은 같았다.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D 측이 먼저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이 왔다. 즉시 소송 참가(Intervention)를 청구하여 소송당사자로 합류했고, 지방법원에서는 중재 판사를 임명해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

중재 판사의 주재 아래 D의 대리인, 한국 상속인 3명의 대리인,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의 아들 H의 대리인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D 측과 H 측은 모두 이슬람 상속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 민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인도네시아 민법 상속조항에는 '상속은 고인의 국적국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었으므로,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 5명에게 균등 분배해야 한다. 민법은 이슬람법에 우선한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D 측과 H 측은 이슬람법만을 고집했다. 결국 중재는 결렬되었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지방법원 재판부는 한국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D 측은 불복하여 반동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마침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정 싸움이 시

작된 지 3년 9개월 만에, 5명의 상속인이 고인의 은행 예금을 각각 20%씩 균등 상속받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한국에 살던 상속인 3명은 3년 9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부친의 유산을 무사히 상속받을 수 있었다.

유산이 한국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현지인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장 부지, 건물, 기계, 원자재, 제품 등 부친의 훨씬 더 큰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한국 상속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재산은 아버지 명의가 아닌 첫 번째 현지인 부인의 명의로고, 차명투자 계약서조차 없습니다. 당초 아버지의 한인 친구분들이 민사소송 시 '현지인 명의지만 실제로는 고인의 소유'라고 증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법정에 서겠다고 나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증언해 줄 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장 유산은 포기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쓰이기를 바란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외식업협의회, ‘폰독 카시 아가페’서 2년 연속 연합 봉사 성료

버카시 고아원에 이어 ‘폰독 카시 아가페’서 두 번째 연합 봉사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회장 이승수)와 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회장 강진호)가 지난 7월 16일(목), 자카르타 북부 소재 고아원 ‘폰독 카시 아가페(Panti Asuhan Pondok Kasih Agape)’를 찾아 2026년 상반기 공동 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버카시(Bekasi) 지역 고아원에 이어 두 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한 두 번째 연합 프로젝트다. 한인 청년 단체의 기획·운영 역량과 외식 산업계의 현장 전문성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민간 사회공헌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봉사가 진행된 ‘폰독 카시 아가페’는 2005년 12월에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이다. 북자카르타 칠린칭 및 끌라빠가딩 등 인근 소외계층 아

동을 포함해 4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 70여 명이 거주 중이다. 한인 단체들은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찾으며 현지 사회와의 신뢰를 다져가고 있다.

K-pop 댄스부터 과일꼬치 만들기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이날 봉사단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참석자들과 고아원 아동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케이팝(K-Pop) 춤을 따라 추고, 홀라후프를 활용한 협동 게임과 그림 그리기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다. 이어 알록달록한 제철 과일을 직접 쥬스 과일꼬치 만들기 놀이를 즐기며 온정을 나누었다.

활동 이후에는 외식업협의회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을 아동들에게 대접하며 한국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행사 현장에는 양 단체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직접 봉사를 이끌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에서는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이동규 수석부회장, 손현목 부회장, 이은주 수석총무, 전상일 재무총무, 고군조·김건일·최태훈·최민환 총무가 참석했다. 외식업협의회 측에서는 강진호 회장과 함께 원종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저 셰프가 자리를 함께했다.

인도네시아 거주 15년 만에 처음으로 봉사 현장에 나섰다는 최민환 한인청년회 총무는 “처음 참석하는 봉사라 긴장되고 떨렸지만, 현장에서 순수





하고 예쁜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절로 녹아내렸다”며 “그동안 현지 사회에 보답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계기로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동포 사회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성원과 찬조

동포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물품 및 기부금 전달도 이어졌다. 기부금 부문에서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최태립 부회장이 1,000만 루피아, 한인회 김신 이사(전 한인청년회 고문)가 500만 루피아를 전달하며 시설 운영과 아동 지원에 힘을 보탰다.

현물 후원 역시 아이들의 실생활과 체육 활동에 꼭 필요한 품목들로 알차게 채워졌다. 이승수 한인청년회장이 아동용 샌들 60개와 축구공·배구공·농구공(각 5개)을 기증했고, KMK그룹 송진은 수석부사장이 운동화 80켤레, 이동규 한인청

년회 수석부회장이 의류 100벌을 지원했다. 이정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제5대 한인청년회장)도 아이들의 간식을 위해 라면 10박스 and 음료 10박스를 전하며 정성을 더했다.

한인 청년들의 열정과 실천으로 이끌어갈 희망찬 나눔

봉사 일정을 총괄한 손현목 한인청년회 부회장은 “소중한 찬조와 봉사의 손길 덕분에 상반기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진호 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 회장은 “이번 고아원 봉사는 두 단체가 마음을 모아 진행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며 “특히 젊은 한인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청년 세대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인 나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수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회장 역시 “봉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활동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 발을 딛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한인 청년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BTS가 던진 질문, 그리고 우리가 갖는 보이지 않는 경계

2026년 여름, BTS는 그래미 시상식에 자신들의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래미가 신설한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 부문 때문이다. 그래미 측은 아시아 음악을 더 많이 조명하기 위한 다양성 확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TS는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과 언어라는 새로운 경계 안에 가두는 것은 또 다른 구분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이는 아시아 음악을 인정하되 별도의 울타리 안에 배치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 긋기인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악계 논란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을 긋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박정옥은 『선 긋는 국가』에서 국가가 국경과 제도를 통해 사람을 끊임없이 구분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線)은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境界, boundary)를 의미한다. 물리적으로는 국가와 국가를 나누는 국경이고, 사회적으로는 계층·인종·성별·세대·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심리적으로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인식의 경계다.

사회학자 미셸 라몽(Michèle Lamont)은 이러한 경계를 상징적 경계(Symbolic Boundary)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우리이고 누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상징적 기준을 만든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식의 구분에 불과하지만, 그 구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제도화되면 실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계(Social Boundary)가 된다. 다시 말해, 차별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 하나에서 시작된다.

국민과 외국인.

합법과 불법.

우리와 그들.

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선은 질서를 만든다. 도로의 중앙선은 사고를 막고, 학교의 규칙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국경은 국가를 유지한다. 선이 없다면 사회는 쉽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는 선이 질서를 위한 기준을 넘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순간이다.

선은 분류가 되고,

분류는 낙인이 되며,

낙인은 결국 차별이 된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많은 선을 긋고 살아간다. 유명 건설사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이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같은 시민이지만 거주지에 따라 ‘우리 사람’과 ‘외부인’으로 구분된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정책 경쟁보다 ‘내 편’과 ‘남의 편’이라는 경계가 먼저 등장한다.

미디어 역시 새로운 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이대남’, ‘이대녀’, ‘김여사’, ‘한남’, ‘맘충’, ‘틀딱’ 같은 용어들은 처음에는 특정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개인을 하나의 이미지로 묶는 낙인이 되었다. 사람은 사라지고 집단만 남는다. 그 순간 대화는 멈추고 이해보다 편견이 앞선다.



인도네시아는 선 굵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999년 서칼리만탄 삼바스에서는 토착민인 다악족과 말레이족, 그리고 이주민인 마두라족 사이의 갈등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다. 같은 해 말루쿠 암본에서는 종교를 기준으로 한 경계가 무장 충돌로 확대되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 1998년 개혁기에는 중국계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상점이 약탈당하고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었다. ‘중국인’ 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만 인식되었다. 정체성은 설명이 아니라 처벌의 기준이 되었고, 선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했다.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고,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선이 그어진 것이다. 우리는 학력으로, 직업으로, 지역으로, 정치 성향으로, 심지어 소비하는 브랜드와 사용하는 언어로까지 사람을 구분한다.

결국 문제는 선의 존재가 아니라 선을 절대화하는 태도다. 사회는 분류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그러나 분류가 사람의 본질을 대신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진다. BTS가 거부한 것은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 “왜 음악보다 먼저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까웠다. 그것은 음악에 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다. 누군가는 한국인이면서 아시아인이고, 동시에 세계 시민이며, 예술가이자 부모이고 친구다. 하나의 선으로 사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사람을 분류하고, 정부는 국민을 분류하며, 기업은 소비자를 분류하고, 언론은 세대를 분류한다. 분류 자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분류가 인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선을 낮출 수는 있다. 벽처럼 높게 세운 경계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바꿀 수는 있다.

국가도 필요하고 정체성도 필요하며 문화적 다양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사람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BTS의 그래미 출품 거부는 단순한 보이콧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경계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선을 긋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끝]

[특별대담] 기록하는 언론이 디아스포라의 미래를 연다 한인뉴스 30년·데일리인도네시아 27주년 기념 기획 대담 인터뷰



하비비센터 취재 후 기념사진

“기록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1996년 7월 첫발을 내디딘 『한인뉴스』가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27년간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현안을 매일 실시간으로 기록해 온 『데일리인도네시아』 역시 3년 뒤 창간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앞두고 있다. 1999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인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한 데일리인도네시아는 지난 27년간 정교한 취재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동포사회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성적 공론장을 구축해 왔다.

월간 지면 매체와 데일리 디지털 매체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두 매체는 상호 보완적 연대를 통해 한인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뤄왔다. 데일리인도네시아를 이끌어온 신성철 대표와 조연숙 편집장 부부를 만나 그간 축적해 온 언론 아카이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대전환기 속에서 한인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들었다.

Q1. 데일리인도네시아는 1999년 창간 이후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인 인터넷 매체로서 27년간 현장을 지켜왔으며, 3년 뒤면 창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미디어 자산을 바탕으로 다가올 30주년을 향해 준비 중이신 특별한 기획이나 발전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성철 대표(이하 신): 『한인뉴스』의 뜻깊은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주년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은 뉴스를 생산한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30년은 축적된 기록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사와 사진, 인터뷰를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와 차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조연숙 편집장(이하 조): 30년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매일 기사를 쓰

다 보면 하루하루의 기록은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30주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난 30년의 기록을 다시 읽고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변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발전, 그리고 평범한 동포들의 삶을 주제별로 정리해 후세에 남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1998년 5월 사태부터 한·인니 수교 50주년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기록들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같은 역사적 자산으로 쌓였습니다. 파편화되기 쉬운 이주민들의 삶을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유효한 역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인 미디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저널리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신: 이민사회는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사라집니다. 언론은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조회수보다 10년, 20년 뒤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해외 한인 언론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 뉴스는 오늘을 기록하지만 결국 내일의 역사책이 됩니다. 이주민은 본국에서도, 정착한 나라에서도 소수자이기에 삶의 흔적이 쉽게 잊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 스스로도 일상을 ‘잠시 스쳐 가는 시간’으로 여기며 기록의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하루하루의 순간은 개인의 기억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다시 공동체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행사 하나, 평범한 삶의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동체 관점에서 맥락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신 대표님께서 언론 경영을 이끄시는 와중에도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박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연구 진행 상황과 함께, 학위를 마친 후의 계획이 한인 미디어 및 동포사회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지 듣고 싶습니다.

신: 박사 과정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인적 네트워크와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현장을 기록한다면 학문은 그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마친 뒤에는 언론과 학문을 연결하는 연구 플랫폼을 만들고, 축적된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한인사회와 양국 관계 연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4. 조 편집장님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매체를 운영하는 한편, 수필 집필과 글쓰기 모임을 주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문학적 소통과 글쓰기 경험이 데일리인도네시아의 편집 방향이나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결을 더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조: 문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작업이고, 저널리즘은 사회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두 영역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수필을 쓰고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감정을 가까이에서 듣게 됩니다. 그 경험은

뉴스를 쓸 때도 숫자와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좋은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고 믿습니다.

Q5. 국내외 언론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기사 초안 작성과 요약에 대체하면서 단순 정보 전달 방식의 ‘속보전’이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정보의 일차 가공을 기계가 담당하는 시대에, 동포 미디어가 독자에게 제공해야 할 ‘대체 불가능한 인간적 통찰’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신: AI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무엇이



째 :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인터뷰 후 기념사진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앞으로 언론의 경쟁력은 속도가 아니라 해석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AI는 정보를 모을 수 있지만 현장을 대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만나고, 분위기를 느끼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은 단순한 뉴스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언론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Q6. 거대 언론사들은 기사 아카이브를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며 빠르게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해외 한인 미디어가 AI 도구와 디지털 환경을 수용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신: 규모가 작은 언론일수록 AI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맡고, 기자는 취재와 분석에 집중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AI를 경쟁자로 보기보다 좋은 편집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AI가 생산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과 검증에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보다 어떤 시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자극적인 이슈와 알고리즘 중심의 소셜 미디어가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여론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아우르는 ‘공론장의 중심’으로서 미디어가 지켜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 공론장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특정 의견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확대하는 기사보다 갈등

의 원인을 설명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기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언론은 편을 가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8. 한국 언론계에서도 십수 년간 축적된 기사와 데이터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무단 활용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가 장기간 쌓아온 한인사회의 소중한 아카이브를 보호하고 그 역사적·상업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 기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적 자산입니다. 장기간 축적된 기사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AI 시대에 정당한 활용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 지난 30년 동안 쌓인 기사들은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록은 기관과 단체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체육회, 예총은 물론 한국문화원, 코이카(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도 저마다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아카이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사관과 한인회, 그리고 한인뉴스를 비롯한 한인 언론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기록을 함께 수집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기록은 남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축적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 자산이 됩니다.

Q9. 디지털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신뢰도 높은 종이 매체의 심층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매달 깊이 있는 담론을 담는 종이 지면과, 매일 신속하게 호흡하는 디지털 매체인 데일리인도네시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상적인 미디어 협력 모델은 무엇입니까?

신: 디지털은 속도를 담당하고 종이는 깊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서로 경



김문환 선생님 인터뷰 후 외대 오바마홀 앞에서 기념사진

쟁하기보다 역할을 분담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 매일의 뉴스는 디지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종이는 한 달 동안 있었던 중요한 흐름을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두 매체가 함께 공동 기획을 하고, 디지털에서 축적한 자료를 종이 매체에서 심층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0. AI 시대를 살아가는 한인 2·3세대는 정보 소비 패턴과 언어 환경이 1세대와 다릅니다. 이들을 미디어의 새로운 독자이자 주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그리고 한인 미디어가 자립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정부 기관, 기업들이 구축해야 할 ‘상생의 아키텍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2·3세대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인사회와 기업, 정부 기관이 함께 청년 기자 양성, 미디어 교육, 장학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 언어가 달라도 정체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3세대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동체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존 미디어를 보라고 하기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으로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당신도 한인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소속



<< 밤방 하리무르티 템포 편집장 인터뷰 기념사진

감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 등 한인 미디어가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면, 기록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1. 오랜 기간 칼럼과 뉴스를 통해 한인뉴스 독자와 지적 소통을 이어오셨습니다. 창간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과 재인도네시아 한인 공동체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한인뉴스』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인뉴스는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며 공동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에 충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공

론장을 지키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 앞으로의 한인사회는 단순히 규모가 큰 공동체를 넘어 '스마트 한인공동체(Smart Korean Community)'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와 한인회,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한인 언론, 상공회의소와 정부 기관, 기업, 그리고 차세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와 기록, 경험을 함께 축적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를 잇고,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한인뉴스』가 지난 30년 동안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모두를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이자 스마트 한인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코원재인니한글학교, ISJ와 교육 협약 체결,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코원재인니한글학교 제공

코원재인니한글학교가 자카르타 소재 영국계 국제학교인 ISJ(The Independent School of Jakarta)와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ISJ 캠퍼스에서 수업을 시작한다.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은 코원재인니한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민 사회 내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6월 4일 열린 협약식에는 코원재인니한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지완, 한국교육원장 김규년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을 축하했다.

코원재인니한글학교 자카르타 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이하 연합교회)를 기반으로 한글과 한국문화를 교육하며 한인 사회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학교 측은 그동안 교육 공간을 제공하며 운영을 지원해 준 연합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교회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ISJ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원재인니한글학교는 ISJ의 우수한 교육 시설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향상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ISJ 측은 “한국 교민사회를 가까운 이웃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원재인니한글학교는 오는 7월부터 2학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입학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코원재인니한글학교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바에서 수마트라로, 돌에 새긴 동맹의 약속 세 번째 이야기 - 아모가빠사(Amoghapasa), 싱하사리의 야망을 담은 돌

이번 달에는 끄르파나가라는 왕에 대해 이야기 하련다. 그는 탄트라 불교를 정치적 언어로 삼아 군도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 했던,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누산타라’ (Nusantara, 산스크리트어로 “섬들 사이의 세계”. 군도 통합의 이상을 담은 개념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이름이다) 구상자였다. 그리고 그가 그 야망을 담아 수마트라로 보낸 메시지가 있다.

자바에서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온 돌 하나가 바로 아모가빠사(Amoghapasa)다.

동맹의 돌, 아모가빠사란 무엇인가

높이 163센티미터의 안산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지난달 살펴봤던 바이라바 석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해골도, 칼도, 분노한 표정도 없다. 직사각형 석판 위에 온화한 얼굴의 존재가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수행 신상들이 부조로 빼

곡하게 새겨져 있다. 받침대 네 면에 새겨진 비문 속에 이 돌이 품은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석상의 주인공은 대승불교의 핵심 존재인 로케스와라(Lokeswara), 즉 우리에게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친숙한 자비의 보살이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형상인 아모가빠사는 산스크리트어로 ‘결코 헛되지 않는 울가미’를 뜻한다. 이 울가미는 보살이 중생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을 상징한다. 마치 울가미처럼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서원. 신들의 세계부터 아귀, 지옥중생까지 육도(六道) 모든 존재의 고통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전화기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달려오는 존재다.

이 석상은 끄르파나가라가 동부 자바 잔디 자고(Candi Jago)에 있는 아모가빠사를 모델로 삼아 제작한 것으로, 중앙의 아모가빠사 주변에는 하아그리와, 수다나쿠마라, 브리쿠티, 파라 등 14명의 수행 신상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만달라(Mandala) 구조를 평면에 구현한 것으로, 중심에 자비의 존재가 있고 수호 신격들이 에워싸는 탄트라 불교의 우주관을 돌에 새긴 것이다.

받침대 앞면의 파당 로코 비문(Prasasti Padang Roco, 1286)은 이렇게 전한다.

‘1286년, 싱하사리 왕 끄르파나가라의 명으로 이 아모가빠사 석상이 자바(부미자와)에서 수마트라(수바르나부미)로 옮겨졌고, 다르마스라야의 왕 트리부와나라자(Tribhuwanaraja)와 그의 백



Arca Amoghapasa,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소재

켜

“켜켜이 쌓인 이야기를 양범은 도슨트가 밝혀 드림”

(주: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켜'를 강조하기 위해 '밝켜'로 표기했습니다)

성 모두가 이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왕이 왕에게 보낸 선물이지만, 비문은 백성 모두의 기쁨을 기록했다. 자비의 올가미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아모가빠사의 이름처럼.

덧붙이자면, 이 석상 뒷면에는 61년이 지난 1347년, 아디티아와르만이 자신의 비문을 추가로 새겼다. 내용은 이렇다. “이 신이 바로 나다. 나는 왕 중의 왕, 말라유 백성의 보호자다.”

앞면이 두 왕국 사이의 우정과 동맹을 기록한 역사의 증언이라면, 뒷면은 한 왕의 개인적인 권력 선언이다. 같은 돌, 전혀 다른 두 목소리 -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역사의 ‘켜’ 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가 하나 있다. 끄르따나가라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으로는 분노한 파괴신 바이라바를 선택했지만, 수마트라 왕국에 보내는 선물로는 자비의 보살 아모가빠사를 선택했다. 적

에게는 죽음의 신, 동맹에게는 자비의 신. 같은 왕, 같은 신앙, 그러나 완전히 다른 얼굴. 이것이 탄트라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던 끄르따나가라의 영민함이었다.

돌에 담긴 진짜 메시지 - 빠말라유 원정대

이 석상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한다. 13세기 후반,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 원(元) 제국이 유라시아를 삼키고 동남아시아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쿠빌라이 칸은 주변 왕국들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복속할 것을 요구했다.

끄르따나가라는 1289년 도착한 몽골 사신을 체포하고 그의 얼굴에 낙인을 찍고 귀를 잘라 돌려보내는 것으로 답했다. 세계 최강 제국의 사신에게 이런 모욕을 가한 것은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보복 원정대가 꾸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끄르따나가라는 몽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 수마트라의 다르마스라야 왕국과 연대를 구축하고자 1275년 빠말라유(Pamalayu) 원정대를 파견했다. 군사 원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교적 포용의 몸짓이었다. 그 포용의 상징으로 1286년 보낸 것이 바로 이 아모가빠사 석상이었다. 분노한 전쟁신 바이라바가 아니라 자비의 신 아모가빠사를 보낸 끄르따나가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너희의 적이 아니라 형제다. 함께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자.”

이 동맹에는 뜻밖의 후일담이 있다. 프리부와나라자 왕에게는 두 딸, 다라 빼etak(Dara Petak)과



아모가빠사 동상의 뒷모습,
뒷면비문은 파당로코 비문이라고도 불린다

다라 징가(Dara Jingga)가 있었다. 빠말라유 원정대가 1292년 자바로 돌아갈 때 이 두 공주도 함께 건너갔다. 훗날 다라 빼딱은 마자빠히트의 창건자 라덴 위자야(Raden Wijaya)의 왕비가 되고, 원정대에 참여한 자바 왕족과 다라 징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디티야와르만이다. 끄르파나가라가 보낸 이 둘 하나가 두 왕국의 피를 섞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이다.

야망의 끝, 그리고 허무한 마지막

끄르파나가라의 야망은 컸다. 싱하사리 역사상 처음으로 ‘데와프라부’ (산스크리트어 데와(신)와 자바어 프라부(왕)의 합성어로 “신이자 왕”이라는 뜻)라는 칭호를 받은 군주로, 동부 자바를 장악하고 수마트라·발리·마두라·말레이 반도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탄트라 불교를 국가 신앙으로 삼아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군도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 한 최초의 누산타라 구상자였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했다. 1292년, 끄르파나가라가 궁궐에서 탄트라 의식을 거행하던 중 봉신이었던 끄디리 왕국의 자야캇왕(Jayakatwang)이

기습을 감행했다. 몽골의 보복 원정대가 자바 해안에 도착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군대의 주력은 해외 원정 중이라 수도의 방어가 허술했고, 끄르파나가라는 의식 중 술자리를 즐기다 기습을 받아 신하들과 함께 살해됐다. 몽골 사신의 귀를 자르고 얼굴에 낙인을 찍으며 세계 최강 제국에 맞섰던 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했다. 쿠빌라이 칸의 보복 원정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목표물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그러나 씨앗은 남았다 - 마자빠히트의 탄생

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끄르파나가라의 사위 라덴 위자야는 살아남아 자바에 상륙한 몽골군을 역이용해 자야캇왕을 무찌르고, 승리에 도취해 방심한 몽골군마저 역습해 쫓아냈다. 그리고 1294년,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을 세웠다. 끄르파나가라가 빠말라유 원정에서 데려온 수마트라 공주 다라 빼딱을 왕비로 맞이하며, 자바와 수마트라의 피가 섞인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끄르파나가라가 1286년 수마트라로 보낸 이 아모가빠사 석상 하나가 두 왕국의 혼인을 낳고, 결국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씨앗이 됐다. 씨앗을 뿌린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달랐을 뿐,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자비의 올가미, 아모가빠사처럼.

다음 호에 들려줄 수마트라의 왕 아디티야와르만(Adityawarman, 1347~1375년)이 자신을 죽음의 신 바이라바와 동일시하며 거대한 석상을 세워 권력을 과시했고, 그 탄트라 불교 신앙의 원조가 자바 싱하사리 왕국의 왕 끄르파나가라(Kertanagara, 1268~1292년)였다는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



9세기보로부두르 사원 벽면에 새겨진 자바 범선 부조
아모가빠사 석상을 싣고 자바에서 수마트라까지
건넌던 '그 시대의 항해기술'을 보여준다



PMK 44/2026 시행, 세무대리 제도가 달라진다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6년 6월 22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MK No.44 Tahun 2026을 공포하며 세무대리인 (Kuasa Pajak)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PMK 229/PMK.03/2014를 폐지하고, Coretax 시스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세무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ihak Lain(기타 대리인)’ 제도의 신설이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응이나 신고, 이의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Konsultan Pajak(세무사)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내부 담당자나 회계사가 실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대리인을 다음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한다.

- Konsultan Pajak (세무사)
- Pihak Lain (기타 대리인)
- Keluarga (가족)

이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공식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립되었다.

SKT 취득이 핵심인 ‘Pihak Lain’

Pihak Lain은 세무사나 가족은 아니지만, 재무부가 발급하는 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을 취득하여 공식 대리권을 얻은 자를 뜻한다. 따라서 향후 Pihak Lain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SKT 취득이 필수다.

다만 이번 PMK는 SKT 발급 필요성만 명시했을 뿐, 신청 자격, 경력, 시험·교육 유무 등 세부

요건은 별도 재무부령으로 위임하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후속 규정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026년까지 한시적 경과조치 적용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은 다음 자격을 갖춘 경우 SKT 없이도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 Brevet 자격증 소지자
- 세무 관련 Diploma III 이상 학위 소지자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이번 개정은 일반 기업의 세무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 담당자가 직접 세무서 대응(SP2DK, 세무조사 등)을 맡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또는 Pihak Lain으로 등록된 자만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위임 시 특별위임장(Surat Kuasa Khusus) 작성과 더불어 Coretax 전자 접근권한 부여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남아 있는 과제

Pihak Lain 제도가 본격 정착하려면 SKT 신청 대상, 자격 요건, 필요 경력, 교육·시험, 등록 유지 요건 등 후속 규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번 PMK 44/2026은 인도네시아 세무전문가 제도의 큰 전환점이다. 향후 재무부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기업과 전문가가 준비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다시 상세히 전하도록 하겠다.

전남 강진군 책놀이 프로그램 강사 '모모쌤' 파리카 씨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태어나 땅그랑에서 자란 파리카 씨는 올해로 한국 생활 9년 차를 맞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한국인 남편, 11살 아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인구 3만 명의 소도시 강진에서 시골 생활에 적응한 그녀는 시부모님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격려 속에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이어왔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언제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며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파리카 씨는 MBC 방송 <목포-강진 똑순이 파리카 씨의 한국 적응기>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한 토크콘서트 <자카르타 & 강진: 두 도시 엄마 이야기>의 강연자로 초청되어 30분간 한국 정착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도서연구회'에 가입했던 것을 계기로 어린이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작년부터 그림책 놀이지도사를 공부하고, 함께 배웠던 동료들과 올해 강진군 여성동아리에 선정되어 '모두모여 책놀이터(모모책)'를 시작했다. 아직은 새싹이지만, 이제부터 강진군 아이들에게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리려 한다.

바쁜 일정 중에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들과 단 둘이 여러 곳을 여행한다. 텐트를 들고 캠핑을 떠나거나 부산으로 겨울 수족관 나들이를 다녀오고, 올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인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 가족 중심의 활발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 자카르타와는 전혀 다른 강진의 논밭 풍경과 자연환경 속에서 매일 삶의 감사함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파리카 씨에게 묻다: 한인뉴스 10문 10답]

Q1.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작은 소도시인 전남 강진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전남 강진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파리카입니다.

2012년 자카르타 아트마자야대학교에서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5년 연애 끝에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인도네시아어



를 잘해서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화 차이로 다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강진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하며 조금씩 적응해 왔습니다. 현재는 강진군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며 그림책 놀이지도사로 활동하는 한편,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2. 인스타그램에 올린 강진의 논밭 풍경 사진과 함께 “이런 풍경 매일 볼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글이 인상 깊었다. 대도시 자카르타 출신으로서 매일 마주하는 강진의 자연환경은 어떤 의미인가?

정말 소중한 일상입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적응이 쉽지 않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마트나 문화시설도 적었으며,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맑은 공기와 새소리, 푸른 나무, 여유로운 분위기를 매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Q3. 시부모님과 함께 직접 농사일을 돕고 흙을 만지는 일상을 공유했다.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보살펴 주는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저희 집은 대규모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논은 다른 분께 경작을 맡겼고, 밭에 우리 가족이 먹을 채소와 작물만 조금 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연세가 제 친부모님과 비슷해서 늘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의 넓은 마음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깊이 믿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Q4. 최근 전남문화재단 주관 <두 도시 엄마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30분간 한국 정작 이야기를 강연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깨고 대중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나?

사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처음이었고, 한국어로 직접 발표 원고를 써보는 것도 처음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함께 다듬어 주시며 "과리카 써는 할 수 있어요"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비를 한 번 넘기면 앞으로 더 수월해지고 배움이 클 거예요"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Q5.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3년 전 어린이도서연구회에 가입한 후, 지금은 강진군 여성동아리 ‘모두모여 책 놀이터’의 강사로 활동중이다.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매진했나?

언어는 평생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OPIK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싶던 차에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소개받아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매체라 오히려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 한국에서는 그림책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연결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더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 그림책의 매력에도 빠졌습니다. 그림책은 단순히 공부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Q6. 강진읍 중앙로 ‘인문학 공간’에서 ‘모모쌤’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대상 책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초등 1~2학년 대상 <우리들의 아빠 이야기> 수업을 맡았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나?

담당자님께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담은 그림책

을 활용해 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침 준다(Zunda) 작가님의 《우리 아빠는 어부》 그림책이 한국에 출판되어 그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너네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부인 아버지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전기가 없어 등유 램프를 쓸 정도로 가난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요즘은 물질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책은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물질보다 가족의 따뜻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Q7.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이나 오세나 작가의 《검정 토끼》 같은 한국 그림책부터 인도네시아 준다 작가의 《우리 아빠는 어부》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림책의 각기 다른 매력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 그림책은 아직 ‘가치 교육’, ‘기초생활습관’, ‘전래동화’, ‘종교’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습니다. 삶의 교훈이나 교육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상상력이나 판타지를 바탕으로 한 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담은 그림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그림책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라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Q8. *아들이 벌써 의젓하게 자라 11살이 되었다.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파리카 씨만의 육아 비결이 있다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동기를 찾는 힘과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아들에게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왜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들은 18개월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배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부모이기 전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Q9. *남편,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다녀왔다. 가족들과 친정 나라를 다녀온 소회는?*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남편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어서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려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세 번째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족여행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고 때로는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나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결혼이민여성들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



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무료 교육이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회를 하나씩 잡아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배우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이 언젠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파이팅!

한인뉴스 편집국

한·인도네시아 사모벤처투자협회(KIIA), 자카르타서 공식 출범...민간 투자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한 · 인도네시아 사모벤처투자협회(KIIA)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민간 투자협력 플랫폼인 한·인도네시아 사모벤처투자협회(KIIA)가 지난 7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OSME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공식 출범했다.

KII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실제 투자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설립한 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한국 자본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와 양국 간 투자·창업 교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회는 양국의 자본과 투자 기회를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IIA Startup Success Program’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안정화 지원, PoC(실증사업) 및 테스트베드 연계, 바이어·전략적 파트너 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 시장 진출 전 과정을 아우른다.

KIIA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5~10년 이상 투자, 창업, 기업경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PE, VC, Private Credit, 디지털자산, IB, 국부펀드 등 다양한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제조, 헬스케어, 농업, ICT·AI, 소비재, 유통, 핀테크 등 폭넓은 산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부터 사업화, 첫 고객 확보,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을 지향한다.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4개 투자 분야 중심 포럼



개최, 양국 투자 커뮤니티 네트워킹, 스타트업 교류 확대와 회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 회장, KOCHAM 이강현 회장, 한-아세안 금융센터 이영직 센터장이 축사를 통해 KIIA 출범을 축하하며 민간 투자협력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협회는 최재유 회장을 중심으로 이승준·최지석(Jesse Choi) 수석부회장, 차성재 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최재유 회장은 “양국의 자본과 기회를 잇는 가장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대표 민간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푸르메재단·샘터 공동 기획 ‘장애인식개선동화 1호’ 선정, 이영미 작가의 《휠체어 타고 다이빙》 큰 반향

- 제2회 적도문학상 대상 수상자 이영미 동포 작가 신간 출간,
김민재 축구선수·이지선 교수 추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쳐 온 이영미 동포 작가의 신간 《휠체어 타고 다이빙》(샘터 출판사)이 샘터 출판사와 푸르메재단이 공동 기획한 ‘장애인식개선동화’ 시리즈(‘푸르메 아이들’)의 1호 도서로 선정되어 출간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의 ‘제2회 적도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영미 작가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이다. 목일신아동문학상, 샘터동화상, 생태동화공모전 대상 수상에 이어 사계절어린이문학상과 정채봉문학상 최종심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꾸준히 작품성을 인정받아 온 이 작가는 이번 신간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뜻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이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번 작품을 “내가 선 곳을 무대로 바꾸는 용기이자, ‘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사고로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응원을 담은 것이다.

이 작가는 지난 7월 23일 부산영어방송(BeFM)의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디인터뷰(D-Interview)’에 출연해 신간 출간 배경과 동화에 담긴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 그리고 아동문학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가톨릭평화방송, 부산외대 등 주요 방송사 및 교육 기관의 출연과 강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휠체어 타고 다이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며 화려했던 아이돌 연습생의 꿈을 접어야 했던 주인공 소년 ‘태리’가 휠체어를 탄 채 푸른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며 새로

운 해방감과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도전을 그린 동화이다.

이 작가는 부산영어방송(BeFM) 인터뷰에서 “지상에서는 장애인을 세상과 격리하는 장벽처럼 느껴지던 휠체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영하도록 돕는 ‘날개’가 된다”며 “물속에서 서로의 숨을 지켜주는 ‘버디(Buddy)’와 교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과 행복을 증명해 나가는 소년의 모습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책에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재가 추천사를 작성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민재 선수는 추천사를 통해 “편견을 딛고 수영을 배우고 다이빙을 하며 잃었던 꿈과 행복을 되찾는 주인공의 모습에 깊이 공감했다”며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향

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푸르메재단과 샘터 출판사는 ‘장애인식 개선동화 1호’로 선정된 이번 신간을 알리기 위해 서울 도심 전역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종각역, 을지로 일대, 이대역, 롯데백화점 본점 인근 옥외 전광판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부 영상 매체(5분 단위 송출), CGV 극장 광고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두 달간 집중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다.

이영미 작가는 《나의 오랑우탄 엄마》, 《마음대로 풍선껌》,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공저) 등 다수의 저작을 발표해 왔다. 이 작가는 “이번 동화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허물고, 많은 어린이와 독자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호에 이어

약초꾼 이야기

5화 - 황백(1)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산행에 나섰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에 땀범벅이 되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바위들과 우거진 나무숲 사이를 두리번거리시더니 곰취를 발견하시고 잎사귀를 따기 시작하셨다. 나도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곰취를 채취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와 채취한 곰취를 나누기 시작하셨다.

“백아, 오른쪽에 모아 놓은 것은 동이나물이란다. 곰취와 동이나물의 차이점을 잘 봐 두거라. 곰취는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잔톱니 같고, 줄기는 흠이 패어 있고 붉은색 띠가 있다. 반면 동이나물은 가장자리가 둔하거나 거의 없고, 줄기는 매끈하고 색상 변화가 없지. 동이나물은 독초야. 곰취 근처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김새가 비슷해서 일반인은 구별하기 힘들지. 혹여나 동이나물을 곰취로 착각해서 먹었다가는 설사와 구토가 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보니 아버지께서 평소 해 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약초인지 독초인지 잘 살펴서 쓰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약초도 잘못 쓰면 독초가 되고, 독초도 잘 쓰면 약이 되는 법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사색에 잠긴 걸음걸이로 산을 내려가셨다. 내 시선은 다람쥐들을 향해 있었다. 다람쥐들이 나를 따라오듯 나무줄기를 오가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쳐다보시더니, 뜬금없이 물으셨다.

“약초꾼이 되고 싶으냐?”

나는 짧게 망설이다가 “네.”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산을 내려오며 말씀이 많아지셨다.

“우리 첫째가 애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구나. 옛 선인이나 도인, 은둔 고수들 중에는 약초꾼이 많았단다. 약초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수양하고 다른 이들도 도와주는, 매력적인 직업인 셈이지.”

아버지는 걱정하신 듯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애비가 아무한테도 알려 주지 말라고 한 장소, 기억하느냐?”

“네, 산청목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산청목이 어떤 효험이 있는지 기억하니?”

“간경화, 간암, 간염, 지방간 등 간 질환에特效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다.”

표정이 근엄해지시며 말씀하셨다.



서상영 | 미르한의원 원장

“약초꾼은 큰돈을 탐해서는 안 된다.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약초꾼이란다. 그렇지만 혹여 돈이 필요할 때가 오면, 산 청목과 애비가 알려 준 약재들을 함께 법제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열 살 때 아랫마을 민수 아버지 기억하니? 평소에 열이 많고 약간 뚱뚱한 체격에 힘자랑하기 좋아하는 분이었지. 갑자기 살이 빠지고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도시 큰 병원에 가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엔 늦었다는 판정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었지. 나는 자연에서 채취한 어성초, 하고초 등 청열해독 약재와 피를 맑게 하는 여섯 가지 약재를 조제하여 주면서 하루 두 번 정성껏 달여 드셔야 한다는 것과,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 주었지. 처음에는 약취 나는 변을 보다가 한 달이 채 안 되어 편하게 변을 보기 시작하더니, 혈변이 멈추고 안색이 좋아지면서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어. 중간중간 약초를 받으러 들르면, 증상 변화에 맞게 약초 종류도 조금씩 달리해 주었던 다. 여섯 달쯤 지나서 찾아와 큰절을 하며, 성의껏 준비했다며 답례품을 지게 한가득 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니! 약초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효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 일은, 정말 보람 있었단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약초 캐는 법과 사용하는 법 외에도,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 주셨다. 햇볕 아래 대머리 아저씨 머리보다 더 빛나는 바위들과 매미들의 합주가 한창인 여름, 땀을 빼질빼질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금아, 이렇게 멋진 신발은 어디서 샀어?”

“샀지!” 한마디 하고 자리를 박차더니 밖으로 나가 버린다.

요 며칠 아버지 눈치가 이상하다. 금이도 편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굳이 영문을 알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약초 캐는 일에만 전념했다.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가을 어느 날, 신발을 닦고 있는 금이에게 함께 약초 캐러 산에 가자고 말을 건넸다.

“난 아버지가 마른 약재 썰고 포장하라고 시킨 일이 있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등을 보였다. 나는 피식 웃어 보이고, 푸대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저만치서 아직도 나를 보고 있는 금이가 보인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오늘은 산에서 어떤 약초와 만날까 기대를 안고 깊숙이, 더 깊숙이 산으로 들어간다. 이기적인 성격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이지만, 순진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동생이니까...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과,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는 금이의 의지를 알기에, 학비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열심히 약초를 캐야 했다.

내 나이 18살, 고3을 목전에 두고 집에 통보를 하였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약초꾼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버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참으셨고, 어머니



천마(天麻)의 효능



는 고심이 깊어지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를 이어 아버지가 걸어오신, 자연과 함께한 이 길을. 아버지는 장기간 약초를 캐러 나가는 날은 홀수 날이 길하다 하여 날을 정해 길을 떠나셨고, 약초를 캐고 난 자리에는 절을 올리거나 묵념을 하는 등 여러 형태로 감사의 예를 갖추셨다. 가을이 무르익어 갈 무렵,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6박 7일 일정으로 꽃감과 떡, 누룽지와 어포를 가득 챙겨 길을 나섰다.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내설악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의 다 왔다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갈 테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알려 준 두 곳의 포인트 중 하나란다. 때론 상황버섯이, 때론 귀한 동충하초가 발견되는 곳이야.”

우거진 나뭇잎과 풀잎을 헤치고 돌밭을 지나, 경사가 구부러진 산길을 따라 힘이 들어도 쉬지 않고 걸어야만 했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반평생을 산길과 함께한 몸이었다.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날쌔게 발걸음을 옮겼다. 곳곳에 피어난 예쁜 꽃들을 보니 연이 생각이 절로 났다. 불어오는 바람이 몸과 마음을 녹이고, 한 순간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어 준다. 말린 어포와 누룽지로 끼니

를 때우고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아버지의 눈과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보다 조금 더 비탈진 곳에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나무 모퉁이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위를 맴돌다가 아버지를 불러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상황버섯은 뽕나무에서 자란 것을 최고로 쳐준다.”

우리가 채취한 상황버섯은 크기와 빛깔도 좋고 손상된 부위도 없는 ‘최상품’이라 하며 콧노래를 부르셨다. 채취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역시나 잊지 않으시고 큰절을 세 번 올리셨다.

그날 저녁 절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한 노스님께서 아버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왔던 곳, 어른이 되어 혼자 이곳을 드나들다가 이제는 아이와 함께 다시 찾은 곳. 저녁은 산채나물을 밥에 얹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 쓱쓱 비벼 먹는 산채비빔밥이었다. 간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 했던가!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가끔씩 바람 소리에 문이 덜컹덜컹 흔들렸다.

다음 호에 계속

韓方



선자세 땅 위에 서는 법, 존재를 다시 배우다

"스티라 수캄 아사남(Sthira Sukham ?sanam)"

자세는 굳건하면서도 편안해야 한다. - 『요가 수트라』 2.46



01 | 다운독 Adho Mukha Śvānāsana

기지개 켜는 개의 모습에서 가져온 본능적인 스트레칭이다.

- 뒤통치가 바닥에 닿는 것보다 척추를 길게 펴는 것이 먼저이다. (무릎을 구부려도 좋다.)
- 손은 어깨너비,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린다. 꼬리뼈는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어깨는 귀와 떨어져 게 외회전한다.
- 5~8호흡을 유지한다. 들이쉴 때 척추를 늘리고, 내쉴 때 뒤통치를 내린다.

[심화] 다이내믹 다운독: 뒤통치를 들고 무릎을 구부려 몸의 축을 뒤로 당기며 추진력을 모은다



02 | 플랭크 Phalakāsana

항아리가 물을 담듯 몸 전체에 에너지를 담아내는 자세이다.

-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한 일직선을 만든다.
- 손목은 어깨 바로 아래에 둔다. 코어와 둔근을 조여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한다. 호흡을 참지 않는다.

[초보] 하프 플랭크: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든다. 정렬 원칙(어깨-손목 수직, 골반 중립)을 지키며 안전하게 코어를 강화할 수 있으며, 손목이 불편하면 팔뚝을 대는 포어암 플랭크로 대체해도 좋다.

[심화] 스타 플랭크: 손과 발을 45도 벌린 상태에서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



다운독과 플랭크를 오가며 만나는 숨 가쁨과 팔의 떨림은 몸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매번 새로워지는 호흡과 반복을 통해 비로소 『요가 수트라』의 '드리다부미(dr̥ḍha-bhūmiḥ, 단단한 바탕)'에 도달하게 된다.



한 타를 아끼려다 라운드를 잃는다



손상현 | '자카르타의 아침' 블로거

“고수는 한 타를 버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지만, 하수는 한 타를 아끼려다 위기를 자초한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프 교습가 하비 페닉(Harvey Penick, 1904~1995)의 가르침을 요약한 이 문장은 아마추어 골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다.

라운드 중 위기는 대개 한 번의 나쁜 샷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스코어를 무너뜨리는 더 큰 실수는 대부분 그다음 샷에서 일어난다.

티샷이 나무 아래나 깊은 러프로 들어간 것은 한 번의 실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제법 넓어 보이는 공간을 향해 무리하게 그린을 노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실제로는 결코 넓지 않은 그 틈에 한 타를 맡기는 순간, 한 번의 실수는 더블보기나 트리플보기로 이어진다.

깊은 러프에 공이 들어간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잘 맞으면 충분히 투온이 가능해 보이고, 운이 좋으면 홀 가까이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평소 러프에서의 샷 결과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봐야 하는데 ‘공만 깨끗하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해’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운에 맡긴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나무 사이의 좁은 틈을 포기하지 못하고 러프에서도 무리한 자신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페어웨이로 공을 꺼내면 한 타를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 틈이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낮은 탄도로 치면 그린 근처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냉정한 판단보다 욕심이 앞선 상태라고 보면 정확하다.

샷 결과도 대부분 비슷하다. 공은 나무를 맞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거나 발 앞에 떨어지고, 때로는 반대편 헤저드로 향한다. 한 타를 아끼려던 선택이 두 타, 세 타의 손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리스크는 두 번째 판단에서 커진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온다. 티샷이 깊은 러프에 잠길 수도 있고, 건기에는 단단한 페어웨이에서 예상보다 많은 런이 발생하기도 한다. 잘 맞은 공이 나무를 맞고 엉뚱한 곳으로 튀거나 세컨드 샷이 벙커 턱 아래에 박힐 수도 있다. 골프에는 실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고수는 공 앞에 서자마자 멋진 샷부터 상상하지 않는다. 먼저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의 대가가 크다면 미련 없이 안전한 곳으로 공을 보낸다. 그린을 직접 노릴 수 있더라도 그린사이드 벙커가 깊거나 핀 위치가 까다로우면 그린 중앙이나 넓은 쪽을 선택한다. 파를 잡을 가능성보다 더블보기를 피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하수는 성공했을 때의 장면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다. 공이 나무 사이를 그림처럼 빠져나가 그린에 올라가고, 동반자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패하면 공이 어디로 향할지는 충분히 생각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용감한 플레이가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운에 맡기는 플레이에 가깝다.

골프에서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샷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다.

스코어를 지키는 골퍼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아마추어 골퍼의 스코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몇 번의 보기 때문이 아니다. 한 홀에서 발생하는 더블보기와 트리플보기, 그 이상의 큰 숫자 때문이다. 보기 두세 개는 버디나 안정적인 파 플레이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만, 한 홀에서 네다섯 타를 잃으면 라운드 전체의 흐름이 와르르 무너진다.

파4 홀에서 티샷이 숲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 공을 페어웨이 방향으로 안전하게 빼내고 세 번째 샷을 그린 근처에 보낸다면 보기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퍼트가 좋으면 파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샷으로 나무 사이를 뚫고 그린을 노리다가 다시 숲에 갇히면 더블보기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두 선택의 차이는 단순히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가 아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느냐, 운에 맡**

기고 있느냐의 차이이다.

싱글 골퍼나 프로 선수들도 샷 실수를 한다. 그들의 드라이버가 언제나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도 아니며, 아이언 샷이 항상 핀 가까이에 붙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스코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실수 이후의 판단이 아마추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번의 실수를 기적 같은 샷 하나로 완전히 만회하려 하지 않는다. 우선 공을 안전한 위치로 보낸 뒤, 남은 거리에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플레이를 선택한다.

좋은 골퍼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를 한 번의 손실로 끝낼 줄 아는 사람이다.

‘본전 생각’이 다음 샷을 망친다

골퍼가 한 타를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본전 생각’도 작용한다. 티샷을 잘못 쳤으니 두 번째 샷에서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은 퍼트를 놓치면 다음 홀에서는 무조건 버디를 잡아 타수를 되찾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나 지나간 한 타를 되찾으려는 조급함은 현재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든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골프공은 플레이어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않는다. 앞선 샷이 불운했는지, 판단이 틀렸는지, 바람이 갑자기 불었는지는 다음 샷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공이 놓인 상태와 목표 지점까지의 조건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는 ‘잃어버린 한 타를 어떻게 되찾을까?’가 아니라 ‘여기서 더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야 한다. 질문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진다.**

트러블 상황에서는 공을 페어웨이로 꺼내고, 깊은 러프에서는 목표 지점으로 그린을 선택하기보다 좋은 어프로치 지점을 선택하며, 긴 파 퍼트는 다음 퍼트가 쉬운 위치와 거리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런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고 동반자



들의 은근한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코어카드에는 화려한 샷이 아니라 각 홀에서 기록한 숫자만 남는다.**

한 타를 버리는 것은 다음 기회를 살리는 일이다

한 타를 버린다는 말은 라운드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 기회를 살려두는 적극적인 판단이다.

파를 포기하고 보기를 받아들이면 더블보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런을 바로 노리는 대신 레이업하면 다음 샷을 자신 있는 거리에서 할 수 있다. 어려운 핀을 외면하고 그린 중앙을 공략하면 3퍼트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당장의 작은 손해를 받아들이므로써 라운드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습장에서 열 번 중 한두 번 성공한 샷은 필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 샷’이라고 보기 어렵다. 긴장과 경사, 러프와 바람이 더해지는 필드에서는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어려운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나온다. 140미터 거리의 벙커를 넘겨야 하는데 평소 7번 아이언의 평균 캐리가 135미터라면, 가장 잘 맞았을 때의 최대 거리가 아니라 실제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는 기적 같은 한 번의 샷이 아니라 신뢰와 자신감,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반복할 수 있는 샷으로 하는 경기다.

고수는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드러난다

하비 페닉의 가르침은 골프뿐 아니라 사업과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이미 투입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계속 끌고 갈 때가 있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 큰 자금을 투입하



고, 이미 틀어진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사업에서도 모든 거래를 성공시킬 수는 없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거래를 정리해야 하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계획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남아 있는 자원과 다음 기회를 보호하는 현명한 의사결정이다.

골프장에서 공을 페어웨이로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열일곱 홀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나은 라운드 결과를 선택하는 일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공이 트러블 상황에 놓인다면 잠시 멈춰 보자. 성공했을 때의 멋진 장면보다 실패했을 때 공이 어디로 향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한 타를 살리려는 것인가, 아니면 라운드 전체를 지키려는 것인가?”

한 타를 버리는 결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욕심을 누르고 현실을 인정하며 다음 기회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스윙의 모양이나 기적 같은 샷보다 위기 앞에서 내리는 판단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수는 한 타를 버림으로써 라운드를 지킨다. 반면 하수는 한 타를 잃지 않으려다 경기 전체를 잃는다. 결국 골프에서 가장 값진 한 타는 트러블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려낸 한 타가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레이업을 한 바로 그 한 타인지도 모른다.

중진공 자카르타 GBC, ‘K-Work Bridge’ 1 기 교육 성료, 인도네시아 우수 인재 채용 희망기업 모집

자카르타GBC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인도네시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인 ‘K-Work Bridge’ 1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생 채용에 참여할 인도네시아 진출기업과 한국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K-Work Bridge’는 인도네시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근무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기업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또는 한국 소재 중소기업과의 취업 매칭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소재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수료생 가운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외국전문인력(E-7-1) 고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카르타GBC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와 현지 교육재단인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JAI), UI Science Techno Park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에는 현지 전문인력 채용을, 국내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1기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100명 규모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취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매칭 트랙’과 한국 소재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한국 매칭 트랙’으로 나뉘어 맞춤형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직무 기초역량과 조직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등 기업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수료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명, 근무지역, 모집 직무, 채용 예정 인원, 필요 전공·경력·외국어 수준, 급여 및 근무조건 등 채용 수요를 자카르타GBC 또는 JAI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기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카르타GBC는 1·2기 교육을 통해 총 200명의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취업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나 자카르타GBC 소장은 “K-Work Bridge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인력 수요와 현지 인재의 취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한국 기업에는 역량 있는 인재를, 인도네시아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형 채용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소재 교민기업은 자카르타GBC 또는 JAI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채용 수요 제출과 인재 매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기 교육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

- 정태철 차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GBC)
- jakarta_gbc@kosmes.or.kr
- Cicilia 대리(JAI)
- info@jendela.org | jendela.org

나의 혁명은 침대에서부터 시작되다

이루미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



월급쟁이에서 탈피, 꿈꾸던 나의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예상과 달리 아침의 시작은 숙취에 찌든 무거움의 연속이었다. 밤마다 “비즈니스”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술자리를 전전하느라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알람은 매일 아침 악을 쓰며 울려퍼졌지만, 부리나케 알람을 꺼버리는 “5분만 더”라는 타협이 이미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불 속 아늑한 온기는 나의 얼굴을 베갯속에 더 파묻히게 했고, 오너로서 출근 시간의 자유를 자주 만끽하기 시작했다. 게으름은 체력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고, 나태함은 그로 인해 정신마저 해이해져 나오는 것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걸으려는 사업가라 자부했으나, 나는 이미 목표와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는 이렇게 해선 안 되었다. 이 허무한 슬럼프를 끊기 위해 돌파구가 필요했다. 퇴근 후 거래처로부터 오는 약속들을 떨쳐내고, 어디 약속 없나 건수 잡는 습관을 나 스스로 과감히 잘라내고자, 다짜고짜 새벽 6시 첫 타임 반에 사무실 인근 여의도에 위치한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6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 30분 기상, 집에서 5시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 밖은 아직 컴컴하다. 특히 초겨울의 새벽녘 한기는 공복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라는 기준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오전 아홉 시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학원 앞 공영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코끝에 느껴지는 초겨울 여의도의 새벽 공기는 찜릿하게 정신을 깨웠다. 빌딩 숲 사이로 부는 칼바람은 나의 코트 빈 곳을 툼툼이 파고들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순간이었다. ‘

또각또각’ 어두운 새벽 공간의 정적을 깨부수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이내 여의도 직장인들이 짙은 새벽 어둠을 뚫고 보도블록을 당차게 찍어 누르며, 코트 자락을 날리며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오는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쓴 혁명가들과 오버랩되었다. 내가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다며 침대 속에서 몽그적거리고 있을 시간에 이들은 출근하며 하루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원이 있는 건물 1층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문을 밀었다. 아는가? 대한민국 여의도에는 커피전문점들이 새벽 6시면 이미 불을 밝히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그 시간, 매장 안은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전의를 다지는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문을 여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물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눈에는 그들 모두가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십 개의 하얀 가면이 동시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했다.

“왔군.”

그들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도 결국 이 새벽을 건디기로 선택했군. 이제 너 역시 우리 편이다.”

새벽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잠보다 목표를 먼저 선택한 사람들, 이름도 직업도 달랐지만 같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밀조직 같았다. 모락모락 종이컵을 쥐고 커피전문점을 나서는 순간,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음이 컷가를 울렸다. 이는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새로운 동료로 맞이하는 새벽 혁명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이날, 여의도 새벽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왜 하나같이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을까. 가이 포크스, 비록 그의 혁명은 거사 직전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고, 지금은 매년 짚 인형(Old Guy)으로 만들어져 불태워지는 신세가 되었지만^[1], 적어도 그는 가슴속에 뚜렷한 목적을 품었던 인간이었다. T. S. 엘리엇은 그의 대표시 〈텅 빈 사람들(The Hollow Men)〉의 서두에 바로 이 가이 포크스를 언급했다. “가이 포크스를 위해 한 톨만(A penny for the Old Guy)”이라는 구절을 던지며, 신념도 열정도 없이 “짚으로 가득 찬 머리”(Headpiece filled with straw)를 맞대고 서 있는 현대인들을 허수아비보다 더 “텅 빈 존재”라고 일갈했다. 그렇다. 예전의 나는 허수아비보다 더 텅 빈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의도 새벽의 직장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과 싸우고, 하루를 먼저 붙잡기 위해 새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내 눈에는 그들이 혁명가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새벽의 전사들을 보며, 나는 비로소 온몸으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식물이 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光合成)이 있듯이, 그것은 여의도 새벽의 차가운 공기(氣)를 깊게 들이켜 흐트러진 내 삶의 영양분으로 치환하는 나만의 “기합성(氣合成)”이었다. 허수아비처럼 방치해 두었던 나의 내면에 비로소 새로운 삶의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의 기합성은 내 삶의 궤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제 무대를 인도네시아로 옮겨온 지금도, 내 하루는 그 새벽의 감각을 생생히 복기하며 새벽에 시작된다. 적도의 후덥지근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멀리서 들려오는 이슬람 사원의 아잔 소리를 배경 삼아 나는 다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선다.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 대신 습한 열기가 몸을 감싸지만, 어둠 속에 홀로 눈을 뜨는 그 찰나에도 여전히 여의도 새벽의 서늘한 긴장감이 흐른다.



영국의 밴드 오아시스(Oasis)는 대표곡 〈Don't Look Back In Anger〉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So I'll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그래서 나는 침대 위에서 혁명을 시작하겠어)

이 가사는 비틀즈의 존 레논과 그의 아내 오노 요코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며 호텔 침대 위에서 벌였던 평화 시위, “베드인(Bed-in)”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받은 구절이다. 평소 존 레논을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으로 꼽아 온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는 그의 여러 작품에 이를 녹여냈다.

〈Don't Look Back In Anger〉 피아노 인트로 역시 존 레논의 〈Imagine〉을 떠올리게 하는 오마주이다. 존 레논이 침대 위에서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혁명을 외쳤다면, 나에게 이 가사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치열한 선언이다.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구호 따윈 필요 없다. 나에게 진짜 혁명은 바로 이불을 걷어차느냐, 다시 나태함의 늪으로 파고드느냐를 겨루는 침대 위에서의 찰나의 결단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다짐이야말로, 타국에서 버티고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도 나는 남들보다 한 호흡 더 빠른 아침을 열며, 새벽의 정기를 받아 내 안의 “기합성”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 내 인생의 혁명은 바로 지금, 침대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

[1] “가이 포크스 데이”(Guy Fawkes Day): 1605년 영국 “화약 음모 사건”의 실패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1월 5일 열리는 영국의 연례행사다. 이날 영국 전역에서 불꽃놀이와 불을 피워 가이 포크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전통이 있다.



『시가렛 걸』 '2쇄 인쇄' 사건

배동선 작가

세상에 2쇄 이상 찍은 책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레일라 S. 추도리 작가의 <바다이야기(Laut Bercerita)>처럼 100쇄를 찍은 베스트셀러가 있는 마당에, 이미 저서 여러 권을 수십 채씩 찍었을 라띠 꾸말라 작가의 <시가렛 걸(Gadis Kretek)> 한국어 번역본이 이제 겨우 2쇄가 나온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대단한 일 맞다.

그걸 작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할 것 같아 숨어 있던 번역가가 부득이 대신 손을 들고 나섰다.

필자도 책 여러 권을 번역하거나 직접 썼지만 2쇄를 찍은 적이 없다. 무명작가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문학은 수요가 없어 출판된 것만 해도 용하다 하겠다. <시가렛 걸>의 2쇄 인쇄는 필자로서도 첫 경험이다.

심지어 맨부커상 후보에 올라 한국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번역 출판된 에카 꾸르니아완 작가의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호랑이남자>, 인도네시아 현대문학의 흐름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여성 소설가 야유 우타미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에 2009년 출판된 <사만(Saman)>조차 2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관련 도서가 증쇄를 찍은 것은 어학교본이나 관광 가이드 정도뿐일 듯하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엄격한 경제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후진국, 돈벌기 위해 일하러 가는 나라라는 이미지였고, 실제로 교민사회도 주재원들과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문화교류란 한국문화원이나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다분히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현지 사회에 투하하는 방식이었다. 한류가 크게 일면서 인도네시아도 그게 그리 싫지는 않았던 눈치다. 그래서 문

화 부문에서는 양적 불균형이 크게 발생했는데, 특히 도서 출판 부문이 극명했다. 2026년 6월 기준, 현지 출판된 한국 원작 번역 도서들이 500편에 육박한 반면 한국에 나온 인도네시아 문학 서적은 20권이 채 되지 않는다. 대략 25대 1이다.

한국어 학사 과정이 설치된 인도네시아의 대학교들이 네 개나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인도네시아어과가 있는 대학교가 여럿 있다는 것은 서로의 언어에 대해 막상막하의 수요가 있다는 뜻이지만, 서로 번역 출판된 도서의 차이는 그만큼 한국 문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압도적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오수향 작가의 <1등의 대화습관(Bicara Itu Ada Seninya)>이나 헤민 스님의 에세이집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스테디셀러들을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도시의 그라메디아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 비해, 한국 서점에서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것은 실로 하늘의 별 따기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도네시아에도 라띠 꾸말라의 저서 외에 별처럼 빛나는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가렛 걸>이 한국에서 2쇄를 찍은 것은 그래서 대단한 일이다.

물론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동명의 5부작 드라마 영향도 2쇄 인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라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었을 것 같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기획과 마케팅도 주효했다. 재단의 '동남아 문학총서' 기획이 없었다면 한국 독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동남아 소설들이 한국 서점 매대에 깔릴 수 있었다. <시가렛 걸>은 동남아 문학총서의 일곱 번째 책이고, 인도네시아

문학으로서는 2022년 출판된 <판데르베익호의 침몰(Tenggelamnya Van Der Wijck)>에 이어 두 번째다. 재단에서는 이 책의 출판 전후로 두 번 라띠 꾸말라 작가를 한국에 초청해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렸다.

<시가랫 길>이 인도네시아 문학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서로의 문학이 좀 더 제대로 번역되어 소개되기 위해서는 좋은 작가와 출판사의 훌륭한 기획의도 외에도 수준 높은 번역가를 육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어과 출신들뿐 아니라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 원작 도서들의 번역을 맡아왔다. 한국어를 한다고 모두 멋진 문학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현지에서 번역 출판되는 한국 도서들이 적지 않은 물량이어서, 좋은 번역가를 만나지 못한 책들은 한국 원작자의 노력과 현지 출판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무색할 정도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진 못했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인도네시아 도서의 경우엔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해당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걸 용납할 리도 없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문제가 엿보인다. 취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인도네시아어 전공 졸업생들이 그리 돈도 안 되고 일감도 얼마 나오지 않는 인도네시아 도서 번역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유명한 인도네시아 작품이 일단 영어로 번역되면 그 영문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어를 곧바로 한글로 번역해도 그 과정에서 부득이 소멸되는 의미와 뉘앙스가 적지 않은데, 영어라는 매개어를 한 번 더 거치면 그런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외대 양승윤 교수님과 공동 번역한 <막스 하벨라르>(2019)의 경우 그런 한계를 한 번 느껴보았다. <막스 하벨라르>가 인도네시아 식민지 시



대의 이야기라지만 원래 네덜란드어로 쓰인 소설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나는 영어 판본과 인도네시아어 판본을 구해 크로스체크하며 원작에 가능한 한 다가가려 했고, 그렇게 초벌 번역한 것을 양 교수님이 네덜란드어 판본과 비교·확인하는 지난한 최종 과정을 거친 후에야 출판되었다. 그나마 후속 수요가 없어 <막스 하벨라르>는 2025년 공식 절판되었다.

인도네시아 문학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지 않은 것은 인도네시아에 유명하거나 뛰어난 작가들이 적어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어 번역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위에 언급했던 인도네시아 번역가들처럼 한국에도 이미 수많은 인도네시아어 전공 졸업생들이 양산되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한다고 해서 모두 유려한 번역문을 쓰진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 학사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인도네시아 중·장편 소설을 번역해서 제출하는 팀 프로젝트 과제를 낸다면 어떨까? AI 문체 범벅의, 오류 검증도 되지 않은 결과물들이 쏟아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라띠 꾸말라 작가가 직접 ‘2쇄 인쇄에 붙이는 말’을 썼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이야기다. 그래서 ‘번역가 입장에서’ 새삼 덧붙이는 말인데, 좋은 작품은 역시 번역가가 아니라 원작 작가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고 번역가는 골퍼의 겸손하면서도 굽주린 왼손처럼 그냥 거들 뿐이다.



익숙함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을 나는 몰랐지

배선묵 | 한인뉴스 편집위원·주아세안대표부 근무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일부러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 보고,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싫어했던 일을 해 보라. 그렇게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인생에는 내가 서 있던 자리의 반대편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내게 찾아왔을 때는 짧았던 30대를 지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다. 그리고 내 인생도 예쁘게 반짝거리기를 욕심내고 있던 때였다. 그때는 그저 '그러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후에도 종종 그 영상이 눈에 띄었고, 그녀의 말과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마음에 남았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문득 떠올랐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길만 고집하려던 나를 한 번쯤 멈춰 세우는 문장이 되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행지를 고를 때면 바다는 늘 가장 먼저 제외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도, 사방이 바다인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나는 괜찮았다.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가게 되었을 땐, 두리번 두리번 가장 먼저 그늘이나 카페를 찾았다..

파도 소리는 좋아하지만 파도는 싫었다. 해 질 무렵의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뜨겁고 습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뒤엎기게 만드는 건 싫었다. 짝사랑한 모래가 씹히는 것과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의무감에 더해진 모래 스크립 알갱이들이 피부를 답답하게 하는 것도 괴로웠다. 그래서 눈이 따갑도록 쏟아지는 햇빛 아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닷물에서 종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끝내 이해되지 않았다.

낚시는 더 그랬다. 한자리에 앉아 언제 올지 모르는 물고기를 기다리는 일은 내 성격과 가장 맞

지 않는 취미라고 생각했다. 이런 나에게 바다낚시는 이번 생에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고 행해질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반대편에도 길은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이 바다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내가 싫어하는 곳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차피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보름쯤 지나 남편은 다시 말했다. “1박 2일만 다녀오자. 가까운 섬으로.”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반대편에도 길이 있다.' 문득 그 문장이 떠올랐다. 늘 같은 선택만 반복해서는 결국 같은 세상만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 끝에, 이번만큼은 이영자 씨의 말을 한번 믿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마지못해 짧고 가벼운 여행을 떠났다. 바다에서만만큼은 현실 육아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암묵적인 자유가 보장되었으니까.

배를 두 시간쯤 타고 도착한 작은 섬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해는 뜨거웠고 바다 냄새는 짙었다. 신이 난 아이는 남편과 바다를 뛰어다녔고, 나는 그늘을 찾아 누워 해가 기울기만 기다렸다. '역시 나는 바다와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아이가 낚시를 해 보고 싶다며 낚싯대를 빌려 달라고 했다. 아이의 장단을 잘 맞춰주는 남편에게 둘을 맡기고 나는 숙소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지루했다. TV도 잘 나오지 않았고 와이파이드도 느렸다. 방은 어두워 책장간 책조차 읽기 어려웠다. 결국 심심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밭길은 자연스럽게 작은 선착장으로 향했다. 낚시를 하고 있는 두 사람 옆에 앉아 나도 낚싯대를 하나 들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멀미가 났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조금 뒤,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졌다. 낚시바늘 주변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른 물



고기들이 한곳으로 모였다 흠어지기를 반복했다. 잡히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했다. 살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손끝에서 느꼈다. 먹이를 툭툭 건드리는 물고기마다 힘이 달랐고, 산호에 줄이 걸릴 때마다 바닷물의 흐름도 달랐다. 바람은 계속 방향을 바꾸었고, 구름도 흘러갔다.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어느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다.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세상은 내가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세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낚시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낚시는 기다리는 일이 아니었다. 변화를 알아채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 끝에 찾아오는 기회를 믿는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인생도 그랬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없으면 멈춰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없으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쉽게 단정한다. 하지만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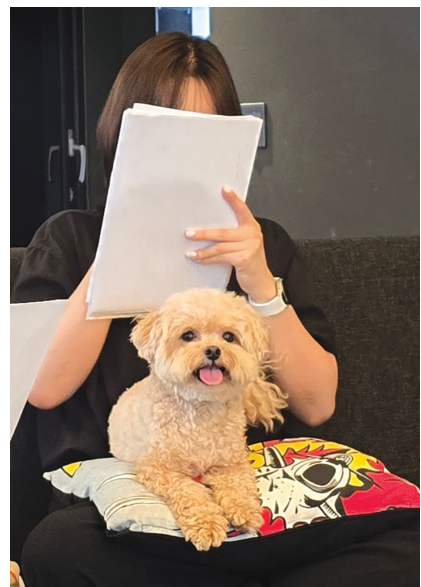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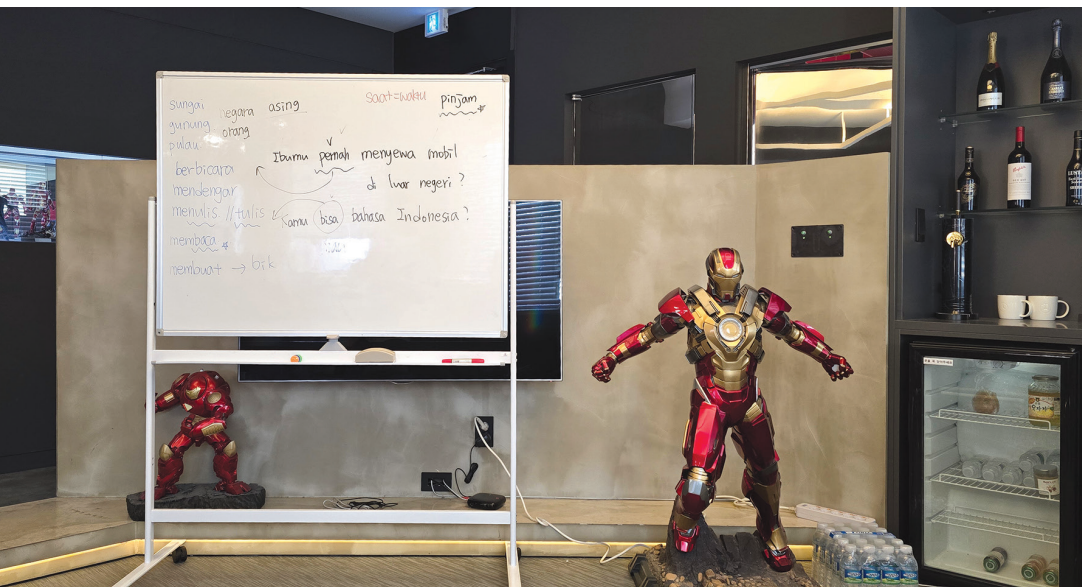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도 여행지를 고른다면 다른 곳을 먼저 선택할 것이고, 낚시를 취미로 삼을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내게 많은 의미를 선물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생각이 있다는 것. 익숙한 길을 벗어나면 또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다른 풍경과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가지 않는 것이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내가 낚아 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길의 끝에도,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날은 물고기들이 아이에게 낚여주지 않았다. 아이가 숙소로 돌아오면서 아쉬워하자 남편은

“내일 아침 먹고 바로 낚시하러 가자. 엄마는 숙소에서 쉬고 있고.” 하며 예쁜 말을 해 줘서 고마웠다. 미끼로 쓰고 남은 오징어 비린내를 맡으며 나는 눈 앞 캄캄한 하늘 위에 아까 보았던 바다 속 아바타 세상을 펼쳐 보았다. 그리고 시선 한 모서리에 그 날의 마지막 해시태그를 달았다.

[#바다를조금좋아하게될것같아](#)



하영지 소장의 인도네시아어 교실

- 3년 동안 함께 성장한 교실 이야기 -

하영지 | 인도네시아어연구소 소장

인도네시아어는 쉬운 언어입니다. 이 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듯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도 바로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HP는 에이치피 아닌가요?”, “ATM도 에이티엠 아닌가요?” 등, 알파벳으로 표기된 표현을 영어식으로 읽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빠(HP), 아메엠(ATM), 까떼빠(KTP)처럼 인도네시아식 발음으로 읽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발음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수업일수록 발음 교정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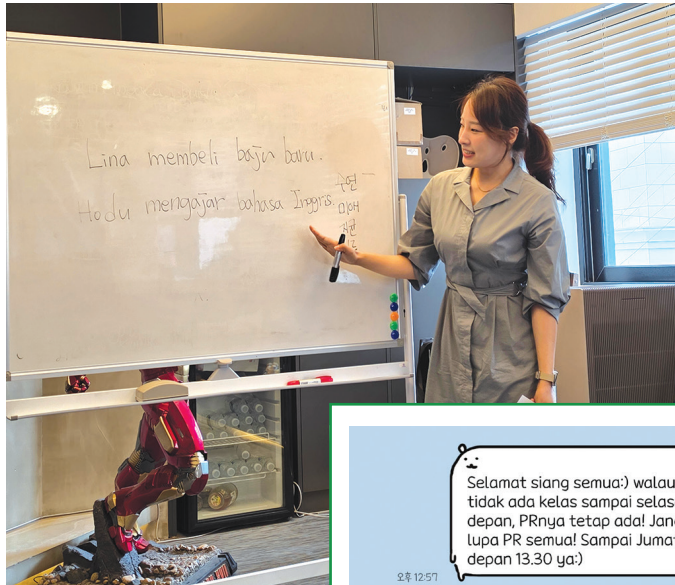
이루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한 인도네시아어 수업도 어느덧 3년째입니다. 가수 이루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알파벳을 읽고, 발음을 익히고, 문법과 어휘를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지금은 각자 주어진 주제로 인도네시아어 글을 쓰고, 그 글

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최근 수업 주제는 ‘취미’였습니다.

기초 인도네시아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이지만, 지금의 수업은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라는 한 문장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길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확장합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소설을 읽어요.”,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처럼 한 문장을 조금씩 확장하며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갑니다.

각자 써 온 글을 함께 읽고 문법과 표현을 다듬은 뒤에는, 그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님은 어떤 취미를 좋아하세요?”, “독서 말고 즐기는 취미도 있나요?”, “독서 다음으로 운동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실내 운동을 더 선호하시나요, 야외 운동을 더 선호하시나요?”



확인합니다. 물론 호두의 진짜 목적은 간식일지도 모르겠지만...! 덕분에 모두들 틈틈이 머리도 식혀 가며 다시 수업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알파벳 하나를 읽는 것부터 시작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인도네시아어로 쓰고, 질문하고, 답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교실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제슬린의 12가지 한국 이야기

고려대 교환학생의 잊지 못할 고연전

제슬린 | 콘텐츠 마케터 · 이벤트 기획자



여러분은 고연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고연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24년에 교환학생으로 고려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고연전이라는 행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고연전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연전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매년 펼치는 스포츠 대항전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고연전’이라고 부르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연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명칭을 두고 서로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야구, 럭비입니다. 다만 제가 있었던 2024년에는 럭비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구와 축구는 누구나 자

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서 교환학생도 경기장에 가서 함께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구와 아이스하키는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번호로 추첨을 진행해 소수의 학생에게만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농구 경기 티켓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농구 경기 관람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대학 스포츠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설렐었습니다.

드디어 고연전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응원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지하철역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하고 관람할 수 있었던 세 경기, 즉 야구, 축구, 농구를 모두 보러 왔습니



다. 고려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춤도 쳤습니다. 경기장은 빨간색과 파란색 물결,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으로 가득했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 결과가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아이스하키와 야구에서 승리했고, 연세대학교는 농구와 축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스포츠 대회가 끝난 뒤에는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수많은 식당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안암동 뒤풀이에 참여하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실컷 먹고 신나게 응원한 뒤에는 인도네시아 친구 몇 명과 함께

개울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을 정도로 즐거웠고, 언젠가는 이 순간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고연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고연전의 뜨거운 분위기와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슬린 (Jesslyn Tjandra Kristanto)

- 학력 · 수상: 인도네시아 UMN 졸업, 정부 장학생 (IISMA) 고려대 교환학생 수료, 2025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1위
- 주요 경력: UMN Festival 2023 총괄 위원장(이벤트 기획 · 연출), PT Tridaya Liberty Jaya 소셜 미디어 오피서(콘텐츠 마케팅)



형사소송법 (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5)

지난 호에 이어

7. 수사관과 검찰 간의 업무 공조

- 7.1. 범죄행위는 수사관과 검찰이 통합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각자의 권한에 따라 협력하여 처리한다.
- 7.2. 양 기관의 공조는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7.3. 협력은 수사관이 검찰에 수사 개시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7.4. 수사관과 검찰 간 협력은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7.5. 조정은 수사 결과 송부 전후에 실시하며 조서에 기록한다.
- 7.6. 수사 결과 송부 후 공조는 사건당 1회만 가능하다.
- 7.7. 검사는 사건파일 검토 시 형식적·실질적 측면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한다.
- 7.8. 사건파일 완비 통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장이 서명해야 한다.
- 7.9. 사건파일이 완비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증거를 검찰에 이첩한다.
- 7.10. 수사관은 수사 개시 후 최대 7일 이내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 7.11. 검사는 수사 개시통지서 접수 후 최대 3일 이내 지정 공소검사와 공조해야 한다.
- 7.12. 수사 과정에서 사건파일 작성, 구속기간 연장, 수사 종료 통보 등을 위해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
- 7.13. 수사가 완료되면 결과와 사건파일을 최대 7일 이내 검찰에 제출한다.
- 7.14. 공소검사가 사건파일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지침과 함께 반환한다.
- 7.15. 수사관은 검찰 지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 14일 이내 완료한다.

- 7.16. 검찰이 사건자료 완비를 판단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증거를 검찰에 이첩한다.
- 7.17. 추가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검사는 사건파일을 반환할 수 있다.
- 7.18. 수사관은 사건파일 보완 후 수사관·검사·감독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 7.19. 심사회의에서 수사 중단 결정 시 수사관은 검사에게 통지한다.
- 7.20. 사건파일 완비 결정 시 수사관은 검찰에 이첩하고 검사는 기소 절차를 진행한다.
- 7.21. 수사관은 충분한 증거 확보 시 검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피의자를 인계할 수 있다.
- 7.22. 검찰은 사건파일 접수 후 최대 14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7.23. 공조 절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8. 기소

- 8.1. 기소권자는 검찰청 검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소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공무원이다.
- 8.2. 기소권자는 사건파일 검토, 수사 협력, 구금 관련 조치, 기소장 작성, 법원 이관, 기소 중지 통지, 벌금 합의, 회복적 사법 절차, 유죄 인정 및 사건 종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
- 8.3. 합의금은 법무장관 승인 하에 벌금을 납부하고 법정 밖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 8.4. 합의금 절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 8.5. 검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사건을 기소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으로 관할 외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 8.6. 공소검사가 법령이나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윤리·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9. 기소 절차

8.9.1. 검찰은 관할 지방법원에 피고인을 기소할 권한이 있다.

8.9.2. 검사가 기소 필요성을 판단하면 최대 7일 이내 기소장을 작성한다.

8.9.3. 기소권 상실로 기소를 중지하는 경우 서면 결정으로 기록한다.

8.9.4. 검사의 기소권은 동일 사건 확정판결, 공소시효 만료, 피고인 사망, 친고죄 고소 취하, 법정 벌금 납부, 회복적 사법 절차 해결 또는 형벌 면제 · 소멸 결정 시 상실된다.

8.10. 기소 중지 결정은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구금 중이면 즉시 석방한다.

8.11. 결정서 사본은 관련 당사자와 기관에 송달한다.

8.12. 검사는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통합 수사가 필요한 경우 여러 사건을 통합 기소할 수 있다.

8.13. 여러 범죄행위는 특별법원 관할을 제외하고 하나의 기소장으로 기소할 수 있다.

8.14. 공범 사건에서는 하나의 기소장에 여러 피고인을 포함할 수 있다.

8.15. 검사는 공범 피의자를 검찰 측 특별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8.16. 특별증인은 범행 입증에 기여한 경우 형사 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8.17. 증인 심문 합의 시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은 합의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8.18. 기소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피고인이 공개할 정보, 증언 의무, 적용 범죄 혐의, 검찰의 보상 및 보장 내용을 포함한다.

8.19. 검찰이 제공 가능한 보상은 사형 · 종신형 구형 제외 보장, 최대 형량의 3분의 2 감경, 7년 미만 범죄의 보호관찰 또는 벌금형 구형 보장으로 제한된다.

8.20. 공소검사는 합의 후 최대 3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8.21. 합의 불성립 시 협상 과정의 정보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22. 검찰은 기소장을 첨부해 최대 14일 이내 피고인을 지방법원에 기소한다.

8.23. 기소장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범죄 내용, 발생 시간 · 장소, 위반 법조항 및 기소 검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8.2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소는 법률상 무효이다.

8.25. 법원은 무효 기소에 대해 검사에게 1회 수정 기회를 부여한다.

8.26. 피고인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는 최종판결에서 판단한다.

8.27. 사건 이첩 통지서와 기소장 사본은 수사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송부한다.

8.28. 검사는 재판 일정 확정 전 기소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8.29. 기소장 수정은 재판 시작 7일 전까지 1회만 가능하다.

8.30. 수정된 기소장은 관련자에게 송달한다.

8.31. 기소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음 호에 계속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100,000,000
6	명예고문	정필립	PT.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0
7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8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9	고문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75,000,000
10	고문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75,000,000
11	고문	이강현	KIM & CHANG	75,000,000
12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13	고문	이종윤	PT.SINAR MASANDA INDUESTRI	75,000,000
14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15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16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17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18	부회장	곽상혁	PT. KODECO ENERGY CO LTD	75,000,000
19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75,000,000
20	부회장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75,000,000
21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75,000,000
22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23	부회장	승범수	PT. TSE GROUP	75,000,000
24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25	부회장	이동규	PT. DAEHAN GLOBAL	75,000,000
26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27	부회장	이주환	PT. BANK NATIONALNOBU TBK	75,000,000
28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29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30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3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75,000,000
32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33	자문위원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0,000
34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000,000
35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36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37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38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000,000
39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40	자문위원	안연진	PT. DEKO KOIN	20,000,000
41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000,000
42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000,000
43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44	이 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5,000,000
45	이 사	강대현	PT. INKOR MARINE SERVICE	15,000,000
46	이 사	강형구	PT. IBS INSURANCE BROKING SERVICE	15,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47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5,000,000
48	이 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5,000,000
49	이 사	김일태	PT.CPL (OROM CONSULTING)	15,000,000
50	이 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15,000,000
51	이 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52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53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54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55	이 사	서광호	PT. KEUMKWANG SEMYU INDONESIA	15,000,000
56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57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58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59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60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61	이 사	염정윤	PT. HANSAE INDONESIA UTAMA	15,000,000
62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5,000,000
63	이 사	우태규	PT.BIMARUNA JAYA	15,000,000
64	이 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5,000,000
65	이 사	이병수	PT. MITRA DONGBU INDONESIA(KB INSURANCE INDONESIA)	15,000,000
66	이 사	이상현	PT. AIDA INTERNATIONAL	15,000,000
67	이 사	이성훈	PT.KORINDO HEAVY INDUSTRY	15,000,000
68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69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70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71	이 사	최희정	PT. MULTI SOLUSI NUSANTARA	15,000,000
72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73	이 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5,000,000
74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2026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입금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조선희	500,000	15	이희경	500,000	28	이송용	500,000
2	최석일	500,000	16	박재걸	500,000	29	이지선	500,000
3	김담빛	500,000	17	이지선	500,000	30	오세명	500,000
4	오정민	500,000	18	김윤영	500,000	31	김동윤	500,000
5	박수연	500,000	19	박선이	500,000	32	이지선	500,000
6	오인병	500,000	20	배진철	500,000	33	최승희	500,000
7	최인실	500,000	21	배산목	500,000	34	김미정	500,000
8	허소영	500,000	22	류정화	500,000	35	배영근	500,000
9	박정민	500,000	23	이지선	500,000	36	홍바하	500,000
10	최지은	500,000	24	이지선	500,000	37	이지선	500,000
11	김지윤	500,000	25	영돈준	500,000	38	서더영	500,000
12	황유미	500,000	26	이지선	500,000	39	장효제	500,000
13	김규리	500,000	27	이현용	500,000	40	기혜정	500,000
14	김윤진	500,000						

2026 안인외관 건립기금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000,000

2026 안인뉴스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50,000,000

생활정보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JIS)	750	3640
북국제학교(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AIS)	782	1141
일본학교(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	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BSD)	537	0290
DAMAI INDAH(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TK Golf Academy	0811 1377 720/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뉴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마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하나마트	8459 0064
Q MARKET(구 한일마트)	7212 0299
한일마트(땅그랑)	0813 1620 0225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깡닭	4584 5837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짜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Bornga)	739 6229
본가(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본가(Wolter Monginsidi)	0811 1880 826
본가(Blok M)	0811 9896 897
본가(Kelapa Gading)	0812 1989 7004
본가(Lippo Mall Puri)	0811 9312 868
본가(Gading Serpong)	0813 8719 1373
본가(Cikarang)	0813 8723 0639
본가(PIK)	0858 8163 0122
본가(Central Park)	0811 8000 3637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북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식당(Saemaoul Sikdang)	
새마을식당(PIK)	0811 9000 1051
새마을식당(SCBD)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	0852 1506 12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 4007 7256
아랑진사갈비	0857 8263 7072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SCBD)	021 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2 1372 2793
청해수산	527 8721
치맥(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 69 4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아웃소싱·시설관리

신테그라(SYNTegra) 08001778889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투어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가람투어 & 컨설팅 021 5573 1236
0821 1010 3647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Fenty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dailyindonesia.co.kr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TK Golf Academy

아마추어도 쉽게 이해하는 프로 레슨

KPGA, KLPGA PRO

- 제형별 맞춤형 레슨
- 불필요한 힘을 뺌, 효과적인 스윙
- 부상 없이 즐기는 골프

instagram @ta3_kyung +62 8111377720
@kckim0509 +62 8111377781
위치 Gading Mas Driving Range, Kelapa Gading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

● HR·채용·헤드헌팅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시내) 021 300 250 4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उ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중고(김태영).....	0811 1092 690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재)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류성운)	0855 1212 14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최재혁)	0811 87 0386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이동현)	0812 2336 6772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허정록)	081218645977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트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 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권 양 회	08122-8000-654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정 찬 식	0815-8414-1495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0822-1996-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7-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석 태 환	0822-8820-1223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0411-483-6713]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